〈특별기고〉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3회): 청일전쟁 발발 직전으로부터 조선의 망국까지의 시기

김 학 준 | 동아일보사

이 문헌조사는 청일전쟁 발발 직전으로부터 조선의 국권상실까지의 16년의 시기에 조선을 관찰한 서양인들의 기록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기록들에 조선이 어떻게 비쳤던가를 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주제어: 〔모두 인명(人名)임〕 캐번디시, 밀른, 비숍, 커즌, 폰 브란트, 이노우에, 묄렌도르프, 알렌, 샌즈, 로제티, 분쉬, 매켄지, 런던, 그렙스트, 헐버트, 래드, 게일

I. 문제의 제기

돌이켜보면, 갑오년(甲午年)인 1894년과 을미년(乙未年)인 1895년은 조선의 명운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점이었다. 1894년 전반기에 조선에서는 동학농민들이 주축이 된 혁명적 봉기가 있었으며 이것을 구실삼아 청과 일본이 조선에 파병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군의 우세 속에서, 1894년 후반기에 조선에서는 친일내각이 성립됐고 이 내각은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 불린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1895년 전반기에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감퇴한 반면에 일본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됐다.

이러한 새 상황은, 1895년에 대내외적으로 일본에 대한 견제로 이어졌다. 우선 러시아는 독일 및 프랑스와 함께 공동으로 일본을 압박해 일본으로 하여금 승전의

결과로 청으로부터 얻게 된 요동반도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보고, 민비가 중심이 된 조선조정 안의 반일세력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이것에 맞서, 일본은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켜 이른바 인아거일(引俄拒日) 세력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은 고종으로 하여금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해 친러내각을 출범시키도록 만들었다.

고종은 1897년에 환궁해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제국의 명운은 점점 각박해져 갔다. 1904년에 마침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1905년에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미국과 영국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승인함에 따라,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으며 5년 뒤 국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 회는 1894년으로부터 1910년까지의 16년 동안 조선을 경험한 서양인들의 관찰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점으로부터 아관파천을 전후한 시점까지의 기록들

1. 서양 탐험가들의 조선답사

캐번디시의 『코리아와 신성한 백두산』. 조선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동아시아의 격류 속에 휘말려들어가는 1890년대에 서양의 탐험가들과 여행가들의 조선 탐방은 잦아졌다. 그들은 물론 탐방을 끝낸 뒤 견문록들을 출판했다. 그것들 가운데 우선 영국군 장교 출신의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 캐번디시(Alfred Edward John Cavendish)의 『코리아와 신성한 백두산(*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을 지적할 수 있다.[1] 조선의 관리들과 선비들 역시 백두산을 답사하고 그 기록을 남겼

1) Alfred Edward John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Being a Brief Account of a Journey in Korea in 1891* (London: G. Philip & Son, 1894). 이 책은 Constance J. D. Taylor,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Paris: Cassel and Co., 1904) 및 Ellasue Wagner, *Korea: The Old and the New*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1)와 함께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45』(서울: 경인문화사, 2001)에 합본되어 있다. 이 책

다.[2] 그러나 서양인의 백두산 등정기는 아마도 이 책이 두 번째일 것이다.[3]

캐번디시는 같은 영국군 대위 출신인 굴드 아담스(Goold-Adams)와 함께 조선에서의 호랑이 사냥과 백두산 등정을 목표로 1891년 8월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그들은 원산을 거쳐 10월 초에 백두산 인근에 도착했다. 그러나 캐번디시는 백두산 등정을 포기했으며, 아담스만 11월 초까지 백두산 등정을 마쳤다.

캐번디시는 서울의 가구는 약 30,000이며 인구는 약 250,000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서양인들이 그렇게 썼듯, "파리가 프랑스의 심장인 것처럼 서울은 코리아의 심장, 또는 그것 이상이다([Seoul] is as much the heart of Korea, or rather more so, as Paris is the heart of France.)"라고 썼다(Cavendish 1894, 24). 서울이 코리아의 심장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은 지방에서의 생활을 경멸하고 서울이 아닌 곳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슬프면서 지루한 생활을 한탄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캐번디시는 조선정부가 왕비와 그녀의 척족의 손에서 좌우되고 있다고 보았다. 국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취약해서 심지가 굳은 왕비의 손에서 괴뢰가 됐으며, 모든 관직들은 왕비의 친척들과 추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 왕비와 그녀의 척족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던가? 그는 그들이 모든 관직들을 팔고 있으며 관직들을 산 사람들은 그 돈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이 '쥐어짜냄'과 부패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국왕과 왕비는 그렇게 획득한 금전을 사치와 미신적 행위들 그리고 변덕스런 짓들에 쓰고 있다고 그는 개탄했다

의 방역본은 다음이다. 조행복(趙幸福) 옮김, 『백두산으로 가는 길: 영국군장교의 백두산 등정기』(서울: 살림출판사, 2008).

2) 김지남(金指南) 외 저 이상태(李相泰)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서울: 혜안, 1998). 이 책은 김지남의 『북정록(北征錄)』과 박권(朴權)의 『북정일기(北征日記)』 그리고 이중하(李重夏)의 『백두산일기』 등 일곱 편의 백두산 답사기로 구성됐다.

3) 백두산을 보고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서양인은 중국에 천주교를 포교하러 왔던 벨기에 출신 예수회 선교사 페르디낭 베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였다. 또 백두산을 등정한 최초의 서양인은 1889년에 백두산을 등정했던 중국주재영사 캠블(C.W. Campbell)이었을 것이다. 정성화, 「해제」,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45』(서울: 경인문화사, 2001), 145-1.

(Cavendish 1894, 24-26).

여기서 토론할 대목은 '쥐어짜냄'이다. 다른 것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것은 서양인들의 조선관찰기들에서 자주 반복된다. 예컨대, 1901년에 고종을 직접 만났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콘스탄스 테일러(Constance J.D. Taylor) 여사는 자신의 조선 체류기에서 조선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내고 있어서' 백성들은 그들의 '쥐어짜냄'을 면하기 위해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썼다.

캐번디시는 조선정부의 또 다른 병폐로 백성들에 대한 잔혹한 억압을 지적했다.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 불법적인 체포와 투옥 그리고 고문을 자행한다고 그는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부패와 억압이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 자행되어 왔다고 비난했다(Cavendish 1894, 27-28).

캐번디시는 조선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관찰들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조선인들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허름한 오두막집들에 살고 있으며, 이 오두막집들 안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생시설이라고는 초보적인 것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극소수의 아주 높은 계급의 사람들만이 비누와 깨끗한 물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인들은 위생관념이 전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선인들은 아무 곳에서나 가래침을 뱉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배설을 하며, 손수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고 그는 흉을 보았다(Cavendish 1894, 22-32).

이렇게 볼 때, 조선에서 전염병이 만연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웠다. 캐번디시는 조선에 매독이 널리 퍼져 있으며, 천연두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을 내고 있고 특히 높은 영아사망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Cavendish 1894, 24-25). 이 점 역시 뒷날 서양인들의 조선관찰기들에서 되풀이된다. 앞에서 인용한 테일러 여사 역시 조선에는 천연두가 자주 발생하고 영아사망률이 높으며 맹인들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다(Taylor 1904, 47-57). 그녀는 조선인들의 개고기 먹는 습관과 그리고 폭식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프랑스와 미국 탐험가들의 조선견문록들. 캐번디시가 백두산을 등정한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와 미국의 탐험가들 역시 금강산을 비롯해 조선의 여러 곳들을 답사한 뒤 견문록들을 출판했다. 그 대표적 사례들로 1) 프랑스의 민속학자이며

탐험가인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의 『조선 여행(*Voyage en Corée*: 1892년 출판)』, 2)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외교관이며 여행가인 샤를르 사예롱(Charles Caillé-Long) 대령의 『코레 또는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La Corée ou Tchôsen, la terre du calme matinal*: 1894년 출판)』를 지적할 수 있다(불레스텍스 2001, 149-163).

우선 바라는 다음과 같은 인상들을 기록했다. 1) "여인들은 못생기고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 2) "저고리의 앞섶을 풀어헤치고 젖가슴을 드러낸 모습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 3) "코레의 도시들보다 더 애처롭고 빈곤하고 비참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등이 그 보기들이다. 사예롱 역시 비슷한 인상들을 기록했다. 1) "고약한 냄새가 나는 기름을 발라 딱 달라붙은 머리카락에 나무통같이 두리뭉실한 코레의 여성들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2) "참을 수 없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썩은 양배추절임 같은 코레의 음식 〔이것은 물론 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필자 주〕은 맛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세련된 미각을 가진 입맛에는 결코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 3) 코레에는 왕실에서부터 미신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등이 그 보기들이다(불레스텍스 2001, 158-160).

서양의 눈으로 가난하면서도 불결한 미개사회라고 파악하면서도, 그들은 조선의 산천경개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라의 경우 "코레의 다양하고 험준한 산골과 협곡은 스위스의 명산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코레에서는 논의 관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같은 농업국가인 프랑스가 이 방식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예롱은 금강산을 방문한 뒤 그 아름다움에 대해 찬탄을 거듭했다(불레스텍스 2001, 156, 163).

2. 서양 여성들의 조선방문

밀른의 『기이한 코리아』.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여배우 루이즈 조던 밀른(Louise Jordan Miln)이 조선을 방문했으며, 『기이한 코리아(*Quaint Korea*)』를 출판했다.[4]

---

4) Louise Jordan Miln, *Quaint Korea* (London: Osgood, McIlvaine and Company, 1895). 이 책은 A. Henry Savage-Landor,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London: William Heinemann, 1895)와 함께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33(서울: 경인문화사, 2000)에 합본되어 있다. 밀른의 경력은 다음에 소개됐다. James F. Lee, "Louise Jordan Miln and Her Unorthodox View of Korea," *Korean Culture*, Vol. 16, No. 2 (Summer 1995), pp. 12-16.

그녀는 1860년을 전후한 시점에 일리노이주 매콤(Macomb) 시에서 태어나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의사이면서 여행가였던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여러 곳들을 여행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1879년에 뉴욕주에 위치한 여자대학 바싸(Vassar College)에 입학했다. 그러나 전문적인 배우가 될 기회를 얻자 졸업을 앞두고 퇴교했으며, 실제로 배우로 일정하게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곧 영국인 배우 조지 크라이튼 밀른(George Crichton Miln)과 결혼했고, 이 부부는 일단의 연극배우들을 이끌고 호주와 아시아를 광범위하게 순회하며 공연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동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으며, 순회공연 때 본 동아시아국가들의 모습들을 우선 『우리가 동방의 순회공연배우들이었을 때(*When We Were Strolling Players of the East*)』에서 묘사했고, 이어 『기이한 코리아』에 담았던 것이다.

그녀는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진행되던 때인 1894년 7월 30일에 런던에서 발행되던 『폴 몰 가제트(*Paul Mall Gazette*)』에 「시(市)의 성벽(城壁)에서 본 서울」이란 글을 기고했는데 — 이 글은 『기이한 코리아』의 제3장을 구성하고 있다 —, 이 글에서 그녀가 서울을 "6년 전에" 보았다고 썼다. 이 사실에 미뤄, 그녀는 1888년에 서울을 방문했던 것 같다. 그녀의 이 글은 독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이것에 힘입어 그녀는 조선의 현황을 포함시키면서 1895년 5월에 『기이한 코리아』를 출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연극과 여행이 계속된 삶을 살다가 1933년에 별세한다.

이 책에 나타난 코리아의 모습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적해야 할 점은 코리아에 대한 그녀의 접근법이 독특했다는 사실이다. 코리아에 대해 책을 쓴 서양인들은 대체로 코리아에 대한 기존의 책들을 먼저 읽고나서, 그리하여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코리아를 관찰했다. 그녀는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했다. 우선 코리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그 뒤 코리아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녀가 묘사한 조선의 모습들은 다른 서양인들이 묘사한 조선의 모습들로부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의 여성에 대해서였다. 그녀는 조선에서의 여성의 삶은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여성의 삶에 비해 낮으며 버마나 태국이나 인도에서의 여성의 삶에 비해서도 낮다고 썼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조선여성의 지위를 묘사했다:

> 코리아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름조차 없다. 결혼 이후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라 아무개 부인이라고 불린다. 결혼 이전에는 이러한 식의 호칭조차 없다. 한 가지 예외,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기생들은 그들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다. […] 조선의 소녀들은 결혼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여성들만의 장소에 격리된 채 산다. […] 결혼한 뒤에는 그녀는 남편의 재산이 된다(Miln 1895, 75-76).

그러나 그녀는 다른 서양인들의 관찰들에 대조되는 관찰들을 제시했다. 우리가 바라 및 사예롱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조선의 여성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녀는 그들의 그러한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들이 본 조선의 여성들은 대체로 아주 어렵게 사는 낮은 계층의 여성들이어서, "한때 아름답던 얼굴들이 눈물 속에서 비천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상류사회의 여성들은 "확실히 아름다우며" 기생들 역시 아름답다고 덧붙였다(Miln 1895, 100-101).

그녀는 민비는 물론 고종의 후궁들 모두 아름다운 여성들이라고 썼다. 특히 민비의 용모에 대해 그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창백하면서 섬세한 용모"에 "범상치 않은 이마"를 가졌다고 쓴 그녀는 민비가 "일본 상류사회에서 태어난 여성"을 닮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녀는 민비가 두발(頭髮)을 중앙에서 나눴으며,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자주 끼고 있었다고 썼다(Miln 1895, 102).

여기서 강조돼야 할 점은 그녀가 여성의 미(美)를 특정 종족이나 민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계급의 관점에서 볼 것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풀어 말해, 노동계급의 여성들은 생활에 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모를 가꿀 시간이나 능력이 없어서 동양에서건 서양에서건 상류계급의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덜 예뻐 보인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예컨대, 영국 여성노동자들의 용모 역시 조선의 하류계급 여성들의 용모처럼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그녀는 고종에 대해, 그리고 고종을 둘러싼 조선의 조정에 대해, 자세히 썼다. 그녀는 "조선의 국왕이 마음과 성격이 약하다"는 서양인들의 관찰을 통박했다. 그녀는 고종을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는 많은 장점들을 가진 반면에 아주 적은 단점들을 갖고 있다"고 쓴 데 이어 "그는 참을성 있고, 너그러우며,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나서 "그는 확고한 정신적 힘과 아주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신민의 복지가 그의 끊임없는 목표이며, 그리하여 오늘날 그는 신민들의 가슴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매듭을 지었다. 그녀는 이어 민비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며, "큰 육체적 힘을 가진 여성"은 아니지만 "도덕적 및 육체적 용기를 상당히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민비가 조선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해야 하고 열강과 수교해야 한다고 언제나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Miln 1895, 58-59, 104).

그녀는 고종과 민비 아래서의 조선의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특히 병폐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오늘날 〔…〕 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과 낙담이다(Today, 〔…〕 in Korea all is confusion and dismay)"라고 쓴 것(Miln 1895, 60), "조선에서 사람들이 열망하는 모든 관직들은 몇 해 동안 그녀의 인척들에 의해 차지됐다"라고 쓴 것, "조선의 경쟁적 시험들은 뇌물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부패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라고 쓴 것, 그리고 "조선에서의 군대란 오늘날에는 우스꽝스러운 허상(虛像)의 존재일 뿐"이라고 쓴 것 등등이 그녀가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병폐에 대해 언급한 것의 거의 전부다. 그는 고종과 민비가 수많은 "첩자들" 또는 "정보원들"을 활용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지지자들을 육성하기도 했다고 썼는데, 이러한 "정보정치"는 세계의 어느 왕실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그녀는 이해했다.

대조적으로, 그녀는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 자세히 썼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다. 그녀는 조선이 곧 망할 것 같다고 예언한 것이다. "조선은 망한 것처럼 보인다. 조선은 〔…〕 죽은 옛 질서의 몇몇 남아있는 과부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구절, "불쌍한 작은 반도여, 이 부드러운 장밋빛의 동양적 아지랑이가 너에게서 떨어져나가고, 냉정하고 명백하며 빛나는 서양화된 날의 빛 속에서 너는 아무 것도 아닌 것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구절이(Miln 1895, 40) 바로 그 예언이었다.

그녀는 조선이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 멸망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재조형(remodel)"될 것이라는 예언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녀는 일본에 의해서건 중국에 의해서건 조선에서 시도될 "재조형"은 "잘못된 것"이 되리라고 단언했다(Miln 1895) 그녀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에 대해, 그리고 그것보다는 작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언급했다(Miln 1895, 276). 실제로 조선은 이 책이 출판된 때로부터 15년 뒤에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고 50년 뒤에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분할된다.

이 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사람들은 생선은 많이 먹지만 고기는 개고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흉년이 들어 쌀과 수수 및 조 등의 생산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물고기의 생산은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선은 조선사람들에게는 주요한 식량공급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조선에서 어떠한 계급도 어부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 조선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산다는 서양인들의 통설을 반박했다. 조선사람들은 다른 색깔들의 옷도 자주 입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기저기서 조선사람들의 흉을 보기도 했다. 1) 조선사람들은 세계에서 에스키모들 다음으로 식탐(食貪)하는 사람들이며 그 결과 폭식한 뒤에는 아주 많이 잔다, 2) 조선에는 종교가 없으며 미신이 성행하고 그래서 역술가들이 많으며 그들은 돈을 많이 번다, 3) 조선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4) 서울에는 도로라고 불릴 만한 길이 거의 없다 등등이 그 대표적 보기들이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의 가을이 지닌 아름다움은 세계에서 그 짝을 찾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조선의 자연환경을 칭찬했다.

비숍의 『코리아와 그의 이웃나라들』. 밀른에 이어 조선을 방문하고 관찰기록을 남긴 서양인이 바로 유명한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이다. 그녀는 1831년에 영국 요크셔의 보로브리지(Boroughbridge)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병약해 주로 집에서 공부했다. 22세가 된 1853년부터 해외여행에 나서,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해 하와이와 일본을 여행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국여성(*The Englishwoman in America*)』(1854)을 비롯한 여행기들을 출판함으로써 명성을 쌓았으며, 그것은 그녀의 전기 출판으로 이어졌다.[5]

그녀는 50세가 된 1881년에 외과의사 존 비숍(John Bishop)과 결혼해 그 이후 비

5) Anna M. Stoddart, *The Life of Isabella Bird (Mrs. Bishop)* (London: John Murray Company, 1906); Pat Barr, *A Curious Life for a Lady: The Story of Isabella Bird, A Remarkable Victorian Traveller*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mpany, 1970). 앞의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37(서울: 경인문화사, 2000)로 재간됐다. 비숍에 대한 또 하나의 전기는 다음이다. Pat Barr, *A Curious Life for a Lady: The Story of Isabella Bird, A Remarkable Victorian Traveler*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mpany, 1970).

숍 여사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불행히도 남편은 5년 뒤에 별세했다. 그러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극동여행을 시작해 65세가 된 1894년 2월에 코리아를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여행가로 저명한 그녀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지의 나라 코리아에 대해 썼기에 그녀의 『코리아와 그의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이 1897년에 뉴욕에서 출판되자마자 매진돼 그 해 안에 3쇄를 찍어야 했으며, 1898년 1월 10일에 런던에서 출판됐을 때[6] 첫 날에 2,000부가 팔렸으며 2쇄 역시 10일 안에 매진됐다. 이 책은 1908년 1월에 4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그녀가 코리아를 처음 방문한 시점에서도 그녀 주변의 교육받은 사람들조차 코리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녀가 코리아를 여행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그 나라가 적도 또는 지중해 또는 흑해 가운데 있느냐고 묻거나 그리스열도 가운데 있느냐고 물었다(Bishop 1898, 11). 둘째, 그녀가 친일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책에 서문을 쓴 조선주재영국총영사 출신의 월터 힐리어 경(Sir Walter C. Hillier)의 서문을 보면, 영국정부 스스로가 친일적이었다.

저자는 1894년 2월부터 1897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경우에 따라서는 남장(男裝)을 하고 뗏목과 노새를 타면서까지 조선의 많은 곳들을 여행했다. 저자는 또 이 시기에 만주를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등 조선의 주변국가들을 방문하면서 그 국가들에 주재한 영국의 외교관들과 국제정세와 조선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녀는 1901년에 모로코를 여행한 뒤 그 여독에 시달리다가 1904년에 별세한다.

이 책은 서양인의 눈에 조선이 어떻게 비쳤는가라는 관점에서 소중한 정보들을 많이 담았다. 1) 원래의 조선은 기자에 의해 건국됐다, 2) 조선의 인구는 정부의

---

6)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7; London: John Murray Company, 1898). 런던판은 2권으로 나뉘어 출판됐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출판부에서 1970년에 재간됐으며,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32(서울: 경인문화사, 2000)로 재간됐다. 이 책의 방역본으로 다음이 있다.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백년 전 한국의 모든것』(서울: 살림출판사, 1994).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서울: 집문당, 2000).

추산에 따르면 대체로 1,200만명에서 1,300만명 사이다. 3) 조선인은 지적으로 우수하지만 남을 의심하고 교활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동양적 악"을 동시에 갖고 있다. 4) 조선은 산악국가로서 평야가 적다. 5)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주 열악하다. 6) 조선인은 샤머니즘과 미신에 빠져 있다.[7] 7) 조선의 산천경개는 아름답지만 나라는 극도로 가난하고 백성들이 사는 곳은 불결한데, 다만 자신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시점에서는 서울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등등이 몇 가지 보기들이다.

그러면 정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첫째, 저자는 여러 곳에서 조선정부의 부패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개혁작업을 수행했던 때, 조선에는 강도와 강도를 당하는 사람의 두 계급이 존재했다. 강도는 물론 군대를 포함한 관료체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관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짰으며(squeezing)" 공금을 횡령했다. 모든 관직들은 매관매직됐다.
2. "조선의 관리는 백성의 생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The Korean official is the vampire which sucks the life-blood of the people)."
3. "이 나라는 공직사회에 의해 먹혔다(The country was eaten up by officialdom)."
4. 조선의 법행정은 뇌물에 의해 좌우되는 등 악명이 높다(Bishop 1893, 263, 303, 372, 441).

저자는 그러한 표현들보다 훨씬 심한 표현들로 조선의 관료제의 부패를 다시 지적했다. 첫째, 그녀는 조선 안에서 조선인들을 본 뒤 조선인들의 "게으름"에 놀랐다. 그러나 극동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들로부터는 조선인들의 "정력과 근면," 그리고 그것에 힘입은 "풍요롭고 안락한 살림살이"를 발견했다. 여기서 그녀는 "게으름"이 조선인들의 특성이 아님을 깨닫고, 조선 밖에서는 부지런한 조선인들이 조선 안에서는 어째서 게으른가를 생각하게 됐다. 그 해답은 관리들의 착취였다. 가족의 의식주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재물을 갖고 있는 경우, 그것은 "탐

7) 조선인이 미신에 빠져 있다는 지적은 서양인들이 조선에 대해 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Elizabeth Keith and E. K. Robertson Scott, *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47), Ch. 3. 이 책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의 시점에서 조선의 역사와 전통 및 현황을 서방세계에 소개한 안내서이다.

욕스럽고 부패한 관리들"이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게으르게 사는 길을 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코리아에서 각 사람은 빈곤이 자신의 최선의 안전임을 알고 있다(Every man in Korea knows that poverty is his best security)"고 썼다(Bishop 1893, 336).

그녀는 관리들이 착취하는 방법들로 1) 강제노역의 부과, 2) 받아야 할 세금보다 2~3배의 세금 부과, 4) 뇌물의 강요, 4) 강제로 돈을 빌린 뒤 안 갚기 등을 지적했다. 만일 관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와 투옥 및 구타 등이 뒤따르며, 불운의 백성은 결국 관리가 요구하는 돈을 내놓게 된다고 썼다(Bishop 1893, 336-337).

저자는 조선이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동시에 "곤고(困苦)에 잘 견디며 후한" 성격의 조선인의 에너지가 잠자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조선인의 에너지는 왜 잠자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대단히 날카롭다. 그녀는 여러 이유들을 지적했는데,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상류계급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으며, 중인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한된 일 밖에는 하지 않은 채 살고 있고, 하류계급은 더 많이 일해 보아야 "늑대" 곧 관리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아니까 필요한 것을 얻을 만큼만 일할 뿐이다. 둘째, 관리의 "가렴주구(exaction)"와 "정의의 총체적 결여(a total absence of justice)" 및 취약한 군주 그리고 미신의 성행 등이 겹쳐져 이 나라를 무력한 나라로 만들었다.
2. 유력인사에게 매달려 사는 생활습관이 조선에게는 "크면서도 보편적 저주"가 되고 있다. "잘 나가는 친척이나 친구"가 서울에 있으면, 자신이 건강하고 평균적 지능을 갖고 있는데도, 그 사람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정치적 가십이나 만들어내고 나쁜 짓을 꾸미기도 하면서 관직을 얻으려고 하며, 이 식객들을 거느리는 "잘 나가는 친척이나 친구"는 그들을 위해 관직을 만들어낸다. 조선에서의 정치적 분란은 원칙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직과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관직을 얻기 위한 갈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3. 조선의 이러한 관습은 참으로 오래됐기에, 갑오경장으로 중요한 개혁이 이뤄졌지만 나라는 여전히 "강도들과 강도를 당하는 사람들(the Robbers and the

Robbed)"의 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반계급으로부터 충원된 관리계급은 이 나라의 "인가를 받은 흡혈귀들(the licensed vampires)"이고 전체 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그 나머지는 "그 존재이유가 그 흡혈귀들에게 빨릴 피를 공급하는 데 있다."(Bishop 1893, 445-448).

그녀는 고종과 민비를 네 차례 직접 보았다. 그녀는 민비가 왕비로서의 우아함과 매력적인 행동거지 및 뛰어난 지성을 지녔으며, 특히 뛰어난 회화능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비의 용모에 대해 "대단히 멋지며 날씬한 여성"이라고 회상했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민비에 대한 평가보다 낮았다. 고종이 "진정으로 정중하며 친절하고 상냥스러운 성격 그리고 일정한 양의 애국적 정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태로운 시기의 군주로서는 "재난이나 다름 없다"고 혹평했다(Bishop 1893, 251-255,433). 이처럼 민비에 대해 애정을 가졌기에 그녀는 1895년 10월에 나가사키를 방문하던 때 민비시해의 소식을 듣자, 일본당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급히 서울을 찾아 진상을 알아보았다.

저자는 조선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다. 그녀는 우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에 둘러싸인 조선의 지리적 위치가 조선의 정치적 관계를 결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썼다. 여기서 출발한 그녀의 설명은 비교적 신중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설명은 그녀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민비를 시해한 것을 "야만스런 쿠(savage coup)"였다고 비난한 것 이외에는 부정적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다. 오히려 청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아주 정직했다"고 썼으며, 일본은 조선을 복속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의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조선의 독립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썼다(Bishop 1893, 453). 그녀는 민비시해에 겁을 먹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난함으로써 조선에서 러시아의 힘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어떤 "공격적 의도들"을 나타낸다면, 일본은 그것에 제동을 걸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녀는 조선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혁돼야 하며 국왕의 권력은 엄격하면서도 영원한 헌법적 견제 아래 놓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ishop 1893, 452). 그녀는 이어 조선은 독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보호국(a joint protectorate)"이 되든가 일본이나 러시아 어느 한 쪽의 "보호국(the tutelage)"이 되

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았다(Bishop 1893, 457).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러시아가 조선에서 우월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영국에 대해 좋지 않을 결과를 빚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상업과 무역을 고려할 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풍부한 자원들과 소중한 항구들을 보유한 이 나라가 적대적 국가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그것은 극동에 있어서 영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며 영국의 위신과 이익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그녀는 1897년 9월의 시점에서 러시아의 신문들이 영국의 조선진출을 경고하면서 러시아정부는 그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조선이 절대로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복했다(Bishop 1893, 457-459)

3. 서양 외교관들의 조선관찰

커즌의 『극동의 문제들』. 청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해 영국의 한 외교관과 독일의 한 외교관이 각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현황과 장래에 대한 책들을 출판했다. 우선 영국의 외교관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이 쓴 『극동의 문제들: 일본 코리아 중국』을 살피기로 한다.[8)]

저자는 1859년에 영국의 더비셔(Derbyshire)에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이튼스쿨을 거쳐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7세이던 1886년에 보수당의 공천을 받아 하원의원으로 당선됐고 1891년부터 1892년까지 인도담당국무차관으로 봉직했다. 그는 1888년부터 1890년까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페르시아를 여행한 데 이어 1892년에는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코리아를 여행하고 자신의 여행기를 출판했다. 그 뒤에도 그는 아시아 여행을 계속해 1894년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미르 고원(高原)을 여행했다. 이 여행을 끝낸 직후인 1895년부터 1898년까지 외무차관으로 봉직했으며, 1899년부터 1905년까지 인도의 부왕(副王: Viceroy)으로 봉직했고,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내각에서 1919년부터 1924년까

8) George Nathaniel Curzon, *Problems of the Far East: Japan, Korea, China*, 2nd ed.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94).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87(서울: 경인문화사, 2001)로 재간됐다.

지 외무장관으로 봉직했다. 그는 외무장관으로 봉직하던 때인 1919년 12월에 소비에트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의 경계선으로 이른바 커즌 라인(the Curzon Line)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선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오늘날에도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는 1925년에 향년 66세로 별세한다.

앞에서 보았듯, 커즌은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를 이끌던 시대의 보수당 소속 정치가였으며 외교가였다. 그러했기에 그는 영국우월주의적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그의 그러한 세계관은 우선 이 책의 「서문」에서 엿보인다. 그는 "아시아의 낡고 죽어가는 나라들의 구원을 위한 최선의 희망"은 "영국적 특성의 확산"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세계관은 이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전망」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는 우선 영국인은 정직하고 우월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판을 갖고 있으며, 이 특성들이 영국으로 하여금 거짓과 부패 및 음모로 가득 찬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Curzon 1894, 428). 그는 이어 영국을 사실상 "신(神)과 같은" 그리고 "왕(王)과 같은" 존재로 묘사한 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의 시를 인용하면서, "아시아 대륙의 저 먼 왕국들"의 장래를 위해 영국이 "불가피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문명화된 영국이 아직도 문명화되지 못한 아시아의 나라들, 특히 극동의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Curzon 1894, 418). 이 역할과 관련해, 그는 상업 및 무역의 발달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를 지적하면서 특히 영국의 "책임"을 역설했다(Curzon 1894, 420).

그는 영국의 주도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영어의 확산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미 요코하마에서 랑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점들에서, 중국의 육군 및 해군 대학들에서, 일본과 태국의 학교들에서, 일본과 중국 및 코리아의 전보서비스에서, 중국인들의 의사소통에서," 영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그는 자랑스럽게 지적한 뒤, 그는 "영어는 극동의 언어가 될 것임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English] is destined with absolute certainty to be the language of the Far East.)"고 장담했다(Curzon 1894, 435-436).

이러한 세계관을 지닌 그에게 코리아는 "약하고 미개발된" 나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제 막 "서양문명의 빛을 받기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강건하나

정신적으로는 지둔한" 사람들이며, 대부분의 조선사람들은 하루 일하곤 그 날의 수입으로 이틀을 놀고지내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서울과 조선정부, 그리고 고종과 민비에 대한 그의 관찰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서양인들의 관찰들과 거의 일치한다. 특히 지배계급의 노동천시사상과 불로소득,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철저한 착취, 그리고 조정의 부패와 매관매직 등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조선의 국제관계와 장래에 대한 그의 관찰들만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열강의 조선정책을 비교하면서, 영국은 조선에 대해 상업적 이익의 확보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욕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국의 정치인답게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조선에서 부동항을 확보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조선에 함대를 상주시키게 될 때, 극동에서의 세력균형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것"이며 특히 영국의 이익은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두 나라가 "맑은 정신"으로 상황에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Curzon 1894, 228-233).

폰 브란트의 『동아시아의 문제』. 이어 중국과 일본 및 조선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막스 폰 브란트(Max von Brandt)의 『동아시아의 문제: 중국 일본 조선』을 살피기로 한다.[9] 저자는 1835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프로이센의 장군이자 문필가였다. 저자는 아버지처럼 프로이센의 장교가 된 뒤 프로이센의 동아시아원정대를 수행해 방일했다가 1861년에 프로이센과 일본 사이에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됐다. 외교계에 투신한 그는 1872년에 일본주재독일변리공사로 발탁됐으며, 1875년부터 1893년까지 청국주재독일공사로 봉직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때인 1882년 6월부터 독일의 조선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해 1883년 11월에 매듭지었다. 그는 1893년 4월에 서울에서 당시 조선주재미국변리공사이던 오거스틴 허드(Augustin Heard)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조선과의 인연을 더욱 두텁게 했다. 그는 결혼 직후 외교관직

9) Max von Brandt, *Ostasiatische Fragen: China, Japan, Korea* (Berlin: Verlag von Gebruder Paetel, 1897). 이 책의 방역본은 다음이다. 김종수(金鍾洙),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 독일외교관의 눈에 비친 19세기 조선 중국 일본』(서울: 살림출판사, 2008). 필자(김학준)는 이 방역본에 의존했다.

에서 은퇴하고 귀국해 바이마르에서 만년을 보냈다(Brandt 1897, 11-12).

이 책은 저자의 회고록도 아니고 견문록도 아니다. 이 책은 그가 1873년부터 1896년까지 약 23년에 걸쳐 여러 잡지들에 발표했던 15편의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그 15편의 논문들 가운데 조선을 주제로 다룬 논문들은 세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 아래, 저자의 관찰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그는 민비를 다음과 같이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 민비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사내대장부"라 일컬어질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결단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대원군의 영향력을 완전히 일소시켰으며, 대(大) 음모가이던 시아버지의 격렬한 증오를 한 몸에 받았다. 민비는 정치적으로 청나라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다. 만약에 민비가 자기가문에만 특혜를 베풀고 그 일족을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민씨가문이 일곱 개의 큰 귀족가문들 중에서 가장 힘있는 권세가이며 사실상 400년 전부터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Brandt 1897, 102-103).

둘째, 대조적으로 그는 고종을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군주라고 평가했다. 민비의 조력과 지지에 의해 고종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썼다(Brandt 1897, 110-111). 셋째, 그는 대원군을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 대원군은 가장 격렬한 외국인 배척자이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그의 아들에게 반대하고, 특히 조정의 진정한 실세인 왕비에 대항하는 모든 음모세력의 핵심인물이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자국의 문호는 굳게 빗장을 걸면서도 조선의 내정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일본인들의 문화적 노력을 답습한 〔사람이〕 대원군이〔다.〕 (Brandt 1897, 302)

넷째, 그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 야욕을 품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구절,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때부터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일본의 노골적이고 은밀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구절, 〔1885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천진조약이 체결된〕 때부터 조선으로 이주해온 수많은 일본인들은 일본대표들처럼 대단히 도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구절, "일본은 참으로 도발적

인 공격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구절 등등이 그 점을 증명한다. 이러한 시각을 지닌 그는 청일전쟁의 책임을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돌렸다. "일본정부는 급진파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 국내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조선으로의 원정에서 찾았다"는 것이었다(Brandt 1897, 292-299). 그는 일본이 이처럼 전쟁도발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청국과의 전쟁발발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언론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함으로써 국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독일정부의 시각과는 일치했다. 그때 독일정부는 프랑스정부 및 러시아정부와 더불어 일본의 동북아시아로의 진출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여론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 스스로 인정했듯, "독일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지금까지 청나라 편을 거의 들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여론과 언론은 〔…〕 오히려 일본 편을 들었다."(Brandt 1897, 322) 그는 일본의 전승이 독일의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관점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독일정부에 권고했다.

다섯째, 그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경우, 일본은 "이웃나라들에 재앙이 되고 모든 국가에 지속적인 우환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전승을 계기로 조선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이 "자의적(恣意的)인 도발의 시대가 동아시아에서도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andt 1897, 325-326).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그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다.

4. 서양 언론인들의 청일전쟁 보도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10)]

프랑스의 화보들. 1894년 7월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의 신문사들은 조선이나 중국에 특파원들을 파견해 전황을 취재하게 했다. 서울의 상황에 관한 첫 보도는 파리에서 발행되던 화보중심의 주간지 『르 프티 파리지엥(*Le Petit Parisien*)』의 1894년 8월 13일자 기사 「혼란스런 수도 서울의 외국인들」이었다. 이 기사는 전쟁의 일차적 책임을 일본에 물었다. 1894년 7월 25일에 일본군함이 경기

10)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신영석(Shin Yong-suk 1986)에 의존했다.

도 수원부(水原府) 풍도(楓島 또는 豊島) 부근의 청국군함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발화시켰다고 쓴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 전쟁이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조선으로 남진하려는 기회를 찾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의 남진 의도가 빚어낸 긴장에 경계심을 갖게 된 영국, 그리고 조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 등의 이해관계가 배후에 얽혀 있는 전쟁"이라고 설명해, 일본의 개전 책임을 희석시켰다.

이 보도로부터 17일이 지난 1894년 8월 30일에 파리에서 발행되던 화보중심의 주간지 『르 몽드 일뤼스트레(*Le Monde Illustré*)』의 특파원 조르쥬 비고(George Bigot)가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을 관광하던 가운데 며칠 안에 편집국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이 신문은 이 편지를 곧바로 게재했다. 프랑스의 신문기자로 조선에 처음 온 그의 편지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일본을 거쳐 부산까지 옴에 있어서 일본군의 총참모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썼다. 일본군 총참모부가 조선주재 일본군사령관 및 일본외교관들에게 보낸 소개장들을 들고 부산까지 왔으며 또 그 소개장들을 들고 부산에서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제물포로 가는 배는 일본군함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일본군의 총참모부가 자신에게 청일전쟁에 관해 보도할 때 일본군이 설정한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사와 그림을 미리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군과 일본정부에 대해 "우호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검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자신이 신뢰하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 편집국장에게 송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둘째, 그는 부산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인상에 대해 썼다. 1) 부산은 벌거벗은 산들에 둘러싸인 황량한 작은 항구다, 2) 이 도시의 일본인 지구에는 약 1,200개의 가옥들이 있으며 약 5,000명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다, 3) 일본인 지구에는 소나무들로 조림이 잘 된 숲들이 있는데, 이 소나무들은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 심은 것들이라고 한다, 4) 부산에는 병원이 셋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 부산에는 일본인이 관장하는 경찰서 하나에 14명의 순경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인들과 함께 이 도시 전체를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 따라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는 조용하기 때문에 전쟁의 분위기

를 전혀 느낄 수 없다 등등이 대표적인 인상이었다.

셋째, 그는 부산의 생활형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러 생필품들의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아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넉 달째 비가 내리지 않은 탓에 음료수의 질이 나쁘고 그나마 귀하고 비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날씨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심각한 가뭄 탓에 물은 극도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질이 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넷째, 부산주민들의 생활형편은 그처럼 열악한 데 비해 일본군인들의 생활형편은 아주 좋다고 그는 보고했다. 일본 국내의 상인들과 공무원들 및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덕에, 일본군인들은 차 담배 정종 통조림음식 건어물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옷도 넉넉히 지급받음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부족함 없이"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그는 조선사람들의 생활형편도 살폈다. 그는 우선 조선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비(非)도전적(gentle and unprovocative)"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그들의 불결함의 수준은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썼다. "[조선] 사람들은 흙과 돌덩이들로 짓고 그 위에 짚으로 엮은 지붕을 얹은 비참한 오두막집들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의 마을들은 볼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고 특파원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기사에 담긴 일본정부기관들의 선전이 미친 영향이다. 일본은 자신이 조선에 식목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그 결과 벌거숭이 민둥산들에 나무가 심어졌다고 선전했는데, 비고 특파원의 기사를 분석한 조선일보사 파리특파원 출신의 신용석(愼鏞碩) 기자가 이미 지적했듯, 비고는 부산의 숲을 그러한 선전에 일치하는 방향에서 설명했던 것이다. 또 일본 국내의 상인들과 공무원들 및 노동자들이 조선의 일본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 전쟁이 일본 군부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각계각층이 지원하는 범국가적 전쟁임을 부각시키려는 일본정부기관들의 선전이었을 것이다.

영국의 화보들. 청일전쟁에 대해 프랑스 이상으로 관심을 보인 나라는 영국이었다. 런던에서 출판되던 화보중심의 주간지들인 『더 그래픽(*The Graphic*)』과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가 청일전쟁 당시의 조선에 관한 기사들과 삽화들을 게재한 것이다.[11] 이 기사들과 삽화들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읽을 수 있다.

첫째, 『더 그래픽』 1894년 8월 4일자 삽화는 조선사람들이 영국군인들을 보자 달아나거나 경계심을 표시하는 모습을 게재했다. 둘째, 조선은 더럽고 악취가 나며 거지가 많은 곳으로 묘사했다. 어떤 서양의 사냥꾼들이 조선의 시골에서 코를 막은 채 길을 지나가는 『더 그래픽』의 1894년 8월 4일자 삽화가 그 점을 보여주었다. 셋째, 『르 몽드 일뤼스트레』의 비고 특파원이 이미 보도했듯, 『더 그래픽』의 1894년 12월 29일자 기사 역시 조선에는 양질의 물이 없어 일본군인들이 이질에 걸려 고생한다고 보도했다. 넷째, 조선사람들의 옷이 남루한 것으로 묘사했다. 『더 그래픽』의 1894년 12월 22일자 삽화는 한 어린이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있고 한 소년은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아래만 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일본군대는 위풍당당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일본의 군함은 웅장하고 최신식인 것처럼 묘사됐다. 반면에 청국군대는 쫓겨다니고 무질서한 것으로 묘사됐으며 청국의 군함이나 병기는 아주 낡은 것처럼 그려졌다. 이 삽화를 보면, 일본은 국력이 치솟아오르는 나라임에 반해, 청국은 후진적이고 쇠락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여섯째, 영국의 화보들은 청국군인들이 조선의 농가에 침입해 소를 빼앗고 조선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소개했다. 이 화보들은 조선사람들이 청국군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반면에,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1894년 11월 17일자 기사와 화보는 조선이 일본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일본군이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걸린 개선문을 행진하는 모습을 큰 그림으로 보도한 것이다.

미국의 일본특파원의 책. 『고베 헤럴드(*Kobe Herald*)』 및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North China Daily News*)』의 미국인 특파원 트럼벌 화이트(Trumbull White)의 저서 『동양에서의 전쟁: 일본 중국 코레아』를 검토하기로 하자. 이 책의 성격은 일본인 굼페이 마투모토(Julius Kumpei Matumoto)가 쓴 이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났다. 그는 일본은 오직 조선이 문명개화된 나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 이외에는 조선에 대해 아무런 욕심이 없음에 비해, "청국은 조선을 야만의 세계에

11) 김장춘(金長春) 엮음,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조선』(서울: 살림출판사, 2008), 40-83쪽. 이 기사들과 삽화들은 영국에서 21년에 걸쳐 유학한 김장춘 교수가 수집한 것들이다.

그대로 묶어두고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진보를 막으려 했고, 러시아는 조선을 침략해 병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이트는 "문명개화국가"인 일본이 조선을 "문명개화"시키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청국이 이것에 발발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썼다.[12]

5. 외국인들의 조선개혁론에 나타난 조선의 대내외상황

청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조정이 갑오경장을 추진하자 조선에 공사관을 둔 외국들은 사태의 흐름을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각각 자신들의 견해들을 밝혔다. 거기에는 그 나라들의 입장이 담겨 있었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도 묘사되어 있었다.

이노우에의 조선개혁론. 우선 일본의 입장이다. 우리가 제2회에서 살핀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직후에 출판한 「한정개혁기문(韓廷改革紀聞)」에 잘 나타나 있다.

이노우에는 우선 청일전쟁의 책임을 청에 물었다. 청이 조선을 번속(藩屬)으로 대하면서 "방약무인한 폭행"을 계속했으며 갑신정변 때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차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잔학한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청이 조선과 일본에 대해 "난폭하고 무례한 거동"을 계속했지만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참고참았다는 표현으로써 일본을 변호했다. 이노우에는 이어 일본정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고종이 개혁안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조정의 폐습이 비로소 씻기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13]

이노우에가 말한 개혁안이란 바로 갑오경장을 추진한 김홍집내각의 용어로는 홍범(洪範) 14조다. 1894년 12월 12일에 선포된 홍범 14조는 조선 최초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1조는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한다"고 선언했다. 이 조항은 물론 일본을 크게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제2조

12) Trumbull White, *The War in the East: Japan, China and Corea* (Philadelphia and Chicago: P.W. Ziegler and Company, 1895), Part III (Corea).

13) 이노우에 가쿠고로 저 신영길 역 · 저, 『조선조 망국 전야기』(서울: 지선당, 2008), 80-82쪽.

로부터 제4조까지는 국왕의 전제(專制)를 제한함으로써 조선이 "민주적인 정부"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외양으로는 좋았으나, 홍범 14조를 구현시킨 세력이 근본적으로는 일본이어서 일본의 내정간섭은 더욱 깊어지고 따라서 홍범 14조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윌킨슨의 『조선의 정부』. 갑오경장은 영국정부로부터도 관심을 받았다. 조선주재 영국총영사관의 총영사대리를 역임했으며 갑오경장 당시 인천주재부영사였던 윌킨슨(W.H. Wilkinson)은 갑오경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개혁이 조선의 정부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를 설명하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갑오경장 이전의 정부구조와 그 이후의 정부구조를 자세히 설명했다.[14]

묄렌도르프의 『조선의 개혁』. 우리가 제2회에서 살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 역시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귀결된 때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897년 1월에, 고종의 외교고문을 지냈던 그는 상해에서 「조선의 개혁」이라는 짧은 글을[15] 썼던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조선의 상황을 살피기로 한다.

첫째, 그는 고종이 군주로서 굳건한 성격과 필요한 추진력을 갖기 못했다고 평가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유력한 당파가 유약한 왕을 좌우에서 분규 속으로 쉽사리 끌어들였다"고 보았다. 둘째, 그는 집권세력의 관리들이나 비집권의 지방거주양반들이나 모두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셋째, 그는 왕실의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비판했다. 넷째, 그는 조선이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보통교육의 실시와 산업의 진흥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안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그때의 조선의 모습들이 보이므로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도록 한다:

1. 조선민족은 총명하고 일본인들보다 소질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를 많

14) W.H. Wilkinson, *The Korean Government: Constitutional Changes, July, 1894 to October, 1895* (Shanghai, 1897). 이 자료는 다음에서 활용됐다.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제1장 각주 33(385쪽).

15) 고병익 역, 「목린덕의 수기」, 『진단학보』, 제24집(1963년 8월), 189-193쪽.

이 세워 어린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조선 8도에 모두 800개의 초등학교 및 24개의 중등학교를 세우고, 수도(首都)에 자연과학과 외국어 및 실업 분야를 각각 전공하는 전문학교를 하나씩 세워야 한다.

조선말은 풍부하고, 한글은 간단하고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습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한자사용을 폐지해야 한다. 각급학교에서 유럽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반드시 배우도록 해야 한다.

2. 조선의 농업은 지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다. 농기구들은 원시적이고, 인공비료는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목축업은 아주 소홀히 다뤄지고 있고 낙농업은 아예 없다. 조선은 이러한 분야들에서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 양잠업을 번성시켜야 하며, 포도를 재배해야 하고 담배재배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콩과 아주까리 및 황마 등을 더 생산하게 해서 수출을 시도해야 한다.
3. 조선의 어장은 풍부하다. 그러나 어업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생선을 냉장 건조 염장 훈제할 생각을 가져야 하며, 어선과 어망을 개발해야 한다.
4. 조선의 수공업은 불량하다. 야장(冶匠) 염색 제철(蹄鐵) 비누 가죽다루기 등에서 개선을 이룩해야 한다. 광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시도해야 한다.
5. 조선의 교통수단은 매우 빈약하다. 길은 조악하고 교량은 드물다. 수레는 구조가 빈약하고 선박은 지극히 원시적이며 편주(片舟)와 전마선(傳馬船)은 초라하다. 도로와 교량을 일정한 계획 아래 수축(修築)하고 주선(主線)과 지선(支線)을 가진 합리적인 철도망을 건설해야 한다. 해상교통을 위해 새 항구를 열어야 한다(목린덕 1963, 191-193).

그는 조선의 항구와 관련해 매우 흥미 있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선 남쪽의 항구들은 1년 내내 얼지 않으므로, 조선에서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제휴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러시아 철도망이 조선의 철도망과 연결된다면 남선(南鮮)의 한 적당한 항구가 대(大)시베리아철도의 종착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 간의 물자수송 및 여객수송이 이것을 통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군사적 견지에서 볼 때 이런 자리는 적당히 요새화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최강의 항구가 될 것이며 다르다넬스해협같이 발해만의 어귀에 있는 만주의 항구보다는 훨씬 낫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는 이자(利子)의 반액을 보장하려 들 것이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군대가 자유로이 통과할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목린덕 1963, 193).

III.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한 시점으로부터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점까지의 기록들

1. 서양 외교관들 및 의사의 회고록들

알렌의 『일기』. 우리는 제2회에서 조선주재미국공사 호레이스 알렌의 『일기』 가운데 제1부와 제2부를 살폈다. 이 제3회에서는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로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룬 그의 『일기』 가운데 제3부(1897년 9월 14일~1898년 7월 27일)와 제4부(1903년 6월 1일~11월 20일)를 살피기로 한다.

제3부의 분량은 짧다. 여기서 당시의 조선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첫째, 알렌은 대한제국주재러시아공사 슈페이에르를 "역겹게" 여겼다. 그를 "가장 거만하고도 시끄러운 사람"이라고 논평한 알렌은 그가 노골적으로 조선에 대한 팽창정책을 썼다고 비난했다. 알렌은 그의 행태와 정책이 서울에서 활동하던 외교관들의 반감을 사게 돼 본국정부로부터 1898년 3월 28일에 소환됐다고 덧붙였다.[16] 둘째, 알렌은 1897년 10월 14일의 일기에서 당시 친러파에 속했던 이완용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인'이다"라고 단정하면서, "그는 결코 한국정부의 공직을 갖지 말아야 할 인물이다"라고 부연했다(알렌 1991, 184-185).

제4부는 전적으로 알렌의 시베리아경유 세계일주 여행길이다. 따라서 조선의 상황에 대한 언급은 아주 적다. 다만 그가 1903년 10월 2일의 일기에서 조선을 "폭풍우의 중심(a storm center)"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용할 만 하다(알렌, 1991, 282). 확실히 조선은 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던 "폭풍우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은 그가 세계일주를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한 뒤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국정부의 조선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기록이다. 그는 1903년 9월 30일자 일기에서 자신과 루스

16)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구한말 격동기 비사』(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177쪽.

벨트 대통령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실상의 동아시아정책고문인 윌리엄 록힐(William Woodville Rockhill) 전미국제협의회(全美國際協議會: International Bureau of American Republics) 회장[17] 등 3자 사이에서 전개된 논쟁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 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알렌이 친러반일정책을 옹호했음에 반해 록힐과 루스벨트는 반러친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알렌 1991, 279-281).

알렌은 러일전쟁의 발발이 임박했다는 인식 아래, 1903년 10월 14일의 일기에서, 조선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면 전승을 거둔 어느 한쪽이 대군주지위(大君主地位)를 차지해서 허구적인 대한제국을 파멸시키고 그 국민들에게 약간의 자유를 부여할 것"이라고 쓴 것이다. 그 역시 고종을 "허약한" 군주라고 덧붙였다(알렌 1991, 288-289).

알렌이 고종을 "허약한" 군주라고 보았듯, 그의 친구인 신문편집인 리텐하우스(Edward E. Rittenhouse)는 조선인들을 자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리텐하우스는 광산조사전문가로 알렌의 추천에 따라 조선의 광산들을 조사한 경험이 있다. 리텐하우스가 1904년 3월 23일에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를 방문했을 때 『샌디에이고 유니언』은 그의 회견기를 게재했다. 이 회견에서 리텐하우스는 "코리언들은 주변의 강력한 이웃들에게 얻어맞은 탓에 모든 투지를 잃었으며 그래서 자치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묘사했다(알렌 1991, 697).

---

17) 록힐은 청국주재미국공사관에서 봉직하다가 1886년 12월부터 1887년 4월까지 조선주재미국공사관의 임시대리공사를 역임했으며,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청국주재미국공사로 봉직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책 그리고 그 틀 안에서의 코리아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이 자세히 설명했다. 김기정(金基正), 『미국의 동아시아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 연구』(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제6장; Jongsuk Chay, *Diplomacy of Asymmetry: Korean-American Relations to 191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Ch. 6. 이 책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부터 조선의 멸망까지의 시기에 있어서의 양국관계를 다뤘다. 이 책은 저자의 1965년도 미시간대학교 역사학박사 학위논문("The United States and the Closing Door in Korea: American-Korean Relations, 1894-1905")을 증보한 것이다. 이 책이 다룬 시기의 양국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들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Scott S. Burnett (ed.) (with an introduction),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I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샌즈의 『외교 회고록』. 이 시기의 조선에 대해 기록을 남긴 또 한 사람의 외국인은 외교관 윌리엄 샌즈(William Sands)다. 그는 1874년에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미국의 멕시코전쟁에 참전한 뒤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을 지휘한 해군소장이었고, 아버지 역시 해군제독으로 미국의 스페인전쟁에 참전했으며 해군사관학교 교장과 필라델피아해군기지 사령관을 역임했다. 이러한 명문가의 후예로, 그는 유럽유학을 마친 뒤 아버지의 모교인 조지타운대학교에서 학부와 법대를 졸업했으며 곧바로 국무부에서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18]

이 회고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1896년에 만 22세의 젊은 나이에 일종의 수습외교관으로 임명되면서 주일공사관에 배치돼 2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짧은 시기다. 여기서 조선과 관련해 소개돼야 할 대목은 그때 미국무부의 지도적 외교관이던 윌리엄 록힐의 발언이다. 그는 샌즈에게 "누구도 코리아[에서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코리아는 너무 하찮다(Nobody wants it; it is too insignificant)"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네가 벌거벗은 외교(diplomacy in the raw)를 보고자 한다면 그곳이 거기다"고 권한 것이다(Sands 1930, 29). 이 발언은 그 시점에서 서양인들이 코리아에 대해 가진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분은 1898년부터 1900년까지 조선주재미국공사관에서 1등서기관 그리고 곧이어 변리공사로 근무하던 시기다. 이 시기의 관찰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서양인들이 남긴 관찰들과 거의 같다. 1) 조선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다, 2) 산은 헐벗었다, 3) 일반 백성들의 집들은 모두가 1층으로, 벽은 진흙이고 지붕은 짚인데 비해, 상류층 인사들의 집들은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 여러 개의 별도의 집들을 갖고 있다, 4) 조선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가장 낮은 하인계급에 속하게 된 여자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으며 주인의 동의 없이는

---

18) William Franklin Sands, *Undiplomatic Memories: The Far East, 1896-1904* (New York: Whittlesey Hous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30). 이 책은 Fred Harvey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과 함께 합본돼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84(서울: 경인문화사, 2001)로 재간됐다. 이 책은 1990년에 서울의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에서 재간됐다. 이 책의 방역본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김훈(金勳), 『조선의 마지막 날』(서울: 미완, 1986), 2) 신복룡 역주, 『조선비망록』(서울: 집문당, 1999). 샌즈의 경력은 위와 같음, 3-5쪽에서 자세히 설명됐다.

주인에 대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여성은 "엄격한 격리"속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는" 생활을 한다 등등이 그것들이다.

그는 자신의 공사관에서의 생활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다. "너무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기에 생활은 편했다고 쓴 그는 조선하인들은 중국하인들이나 일본하인들보다 유능하지 못했고 중국하인들이나 일본하인들과는 달리 도박을 포함한 비행을 자주 저질렀으며 결국 그들을 체벌로써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조선의 기생들을 일본의 게이샤들에 비교한 뒤, 조선의 기생들은 지능에 있어서나 외모에 있어서 일본의 게이샤들에 뒤떨어진다고 썼다. 러시아인으로 한국에 귀화한 오슬로 대학교 교수 박노자는 샌즈의 이러한 서술들은 백인우월주의에 입각한 인종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19]

샌즈는 정치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찰들도 제시했다. 첫째, 서울이 조선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다. 그는 베이징과 도쿄와 파리가 각각 중국과 일본과 프랑스인 것 이상으로 서울은 조선의 심장이요 중심이라고 썼다("Seoul is the heart of the nation and the center of its life much more than Peking or Tokyo is the center of Chinese or Japanese national life. Seoul is to Korea much more that Paris is to France.")(Sands 1930, 56). 그는 오직 평양이 그 자신의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조선의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에 대해서다. 그는 조선이 "극동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the weakest of the Far Eastern countries)"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조선이 "국내적으로 취약한" 나라라고 평가했다(Sands 1930, 56). 그는 또 러시아가 조선에서 부동항들을 확보하려는 야심을 품어왔다고 지적했다(Sands 1930, 57). 그는 러시아의 조선정책의 바탕에는 조선이 "일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칼(A sword aimed at the heart of Japan)"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씀으로써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을 장악하고자 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러시아에 일본이 맞섬으로써 러일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는 풀이했다(Sands 1930, 79).

셋째, 그는 자신이 알현했던 고종과 민비에 대해 회상했다. 그는 고종을 "흰 얼

19) 「지금 우리는 1백년 전의 서양인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박노자 · 허동현(許東賢)의 '한국근대 1백년 논쟁' (11) 서양인의 조선관 — 박노자」, 『프레시언』, 2004년 4월 2일.

굴의 작은 사람으로, 거동에 있어서 열성적이면서도 소심한 황제"라고 촌평했음에 비해 민비를 "모든 점에서 걸출한 여성"이라고 칭찬하고 민비의 정치적 재능에 대해 높이 평가한 데 이어 민비의 장점들을 자세히 썼다. 그는 특히 "민비는 오직 조선이 자유롭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행복한 왕이 되는 것 만을 바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Sands 1930, 60-63).

이 책의 세번째 부분은 산도(山島)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그가 26세의 젊은 나이에 "광무 4년 1월 15일"자로 궁내부(宮內部) 찬의관(贊議官) — 이 직함은 그의 표현으로는 advisor to the emperor — 에 임명되고 "광무 4년 2월 24일"자로 "외부고문관사무서리(外部顧問官事務署理)"에 임명된 이후 조선을 떠난 1905년까지 약 5년에 걸친 시기다. 샌즈가 조선조정에서 일한 5년의 시기는 조선에서 중국의 세력은 사실상 완전히 감퇴한 대신에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이 확장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의 장악을 위해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다. 샌즈의 관찰로, 이러한 상황 아래 "조선인들 스스로는 희망을 포기하고 관심을 잃은 채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두 경쟁자들 가운데 더 강력한 자, 곧 러시아 또는 일본에 맡겨놓기로 결정했다(The Koreans themselves gave up hope and lost interest, and finally decided to throw in their lot completely with the stronger of the two rivals: Russia, or Japan.)" (Sands 1930, 118-119). 샌즈의 대안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의 "조선의 중립화(the neutralization of Korea)"였다. "조선의 중립화"는 주미전권공사와 참정대신을 역임한 민영환이 제의했던 것으로, 샌즈는 민영환과 제휴해 이 안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는 조선을 중립화하고 조선과 열강 사이에 "절대적 평화조약들(absolute peace treaties)"을 체결하게 하는 길을 찾고자 했다(Sands 1930, 119).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유리한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정을 개혁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긴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무엇보다 "족벌주의"와 "뇌물"에 의해 좌우되는 관리임용시험과 관리임용 그 자체에 대한 개혁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관리가 되기 위해 바쳐야 할 뇌물을 마련하고자 일본인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관리가 된 뒤 뇌물을 받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사례들을 자세히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구상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우선 중립화와 다자간 평화협정체결의 구상은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 철저히 배격됐다. 이 두 나라는 조

선의 내정개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들은 조선에 무질서가 발생해야 간섭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주재러시아공사 미하일 파블로프(Mikhail Pavloff)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러시아가 평양을 포함한 북부를 차지하고 일본이 서울을 포함한 남부를 차지한다는 조건 아래 조선을 분할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소문이 돌았다 ([…], there might be some truth in the rumor brought to me that he had recently propos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divide Korea between them; the Russians to take the north with Peng Yang City, and the Japanese the south with Seoul)(Sands 1930, 158).[20]

샌즈는 고종의 외교고문으로 일하던 때의 어느 시점에 — 그는 그 시점을 적시하지 않았다 — 고종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났다. 이것과 관련해 샌즈는 중요한 증언을 남겼다. 이토가 일본이 주도하는 일본과 조선 및 중국 3개국의 "가까운 동맹(a close alliance)" 또는 "극동의 연합(a union of the Far East)" 또는 "연방(a federation)"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이 안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권했다("He encouraged me to speculate upon hypothetical federation of the three Oriental empires: Japan, China and Korea.")는 증언이다(Sands 1930, 228). 그는 이 안에 대해, 이토가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의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서방국가들이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일제의 조선통감으로 취임한 이토 그리고 조선통감 이토의 외교고문역을 수행했던 미국인 더램 스티븐스(Durhman W. Stevens) 변호사를 조선의 의사(義士)들이 암살한 것을 나쁘게 말했다("The worst thing Korean ever did for themselves was to assassinate

20) 파블로프는 대한제국의 분할보다 중립화에 역점을 두었다. 1902년 1월 30일에 영일동맹이 체결돼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파블로프는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 일본의 세력신장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1902년 9월에 귀국하는 길에 이즈볼스키(Izvolskii) 주일러시아공사 및 카시니(Cassini) 주미러시아공사와 회동하고 미국을 통한 대한제국의 중립화를 논의했다. 그러나 영일동맹을 계기로 동아시아정책에 직접 간여하기 시작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한제국의 중립화를 거부했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했다(현광호 2002, 34-35).

이러한 러시아의 동향에 대해, 일본은 청일전쟁 이래 조선을 보호국으로 편입시킨다는 정책을 고수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에 자주 만한교환(滿韓交換)을 제의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한국분할론과 만한교환론을 주도적으로 제안했다고 판단해, 러시아경계론을 폈다(현광호 2002, 294).

him and kill Durham White Stevens.") (Sands 1930, 227)

샌즈는 1905년의 을사늑약을 계기로 미국정부가 조선주재공사관을 철수시키자 귀국해 파나마와 과테말라 및 멕시코 등 중미의 미국 공관들에서 근무했으며, 그 이후에는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러나 러시아포로송환위원회와 러시아주재미국국제협력협회 및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 등에서 활동함으로써 국제외교 분야와의 연을 이어나갔다. 그는 1946년에 별세한다.

로제티의 『꼬레아 에 꼬레아니』. 샌즈가 관찰하던 시기의 조선을 관찰한 또 한 사람의 서양 외교관이 서울주재이탈리아총영사로 봉직했던 까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였다. 중국주재이탈리아공사관에서 근무하고 귀국하는 배 위에서 서울 근무를 명령 받았던 그는 1902년 11월부터 1903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에서 봉직했다. 귀국 직후인 1904년 2월에 조선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이 작은 나라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에 부응해 책을 쓰게 됐다. 이 책이 1904년에 로마에서 출판된 "조선 그리고 조선사람들"이라는 뜻의 『꼬레아 에 꼬레아니(*Corea e Coreani*)』[21]이다.

이 책은 2권으로 구성됐다. 게다가 약 400장의 사진이 게재돼, 전체의 양이 방대하다. 제1권은 대체로 조선의 지리 역사 언어 문화 풍습 종교 등에 관해 기존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저자 스스로 알렌의 『코리아의 민담들』, 비숍의 『코리아와 그의 이웃나라들』, 하멜의 『표류기』, 달레의 『꼬레의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리피스의 『코레아: 은자의 나라』 등을 자신의 주요한 참고자료들로 꼽았다. 그래서 그 책들에 포함됐던 설명들이 이 책에서 되풀이되곤 했다. 예컨대, 서울이 조선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해 그리피스가 썼던 표현이, 그리피스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 서울과 비교할 만한 요소를 갖춘 도시는 아시아의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파리가 프랑스의 그 자체인 것처럼 서울은 바로 꼬레아이다. 서울은 꼬레아반도 전 인민의 열망의 대상으로서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중심지이며 국가활동의 모든 소식이 퍼져나가는 진원지이다. 알프스 너머 우리 이웃인 프랑스인들이 "프로방스"라는 단어를 파리가 아닌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21) 이 책의 방역본으로 로제티(Rossetti 1996)가 있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꼬레아에서는 서울이 아닌 지방은 곧 시골이다(로제티 1996, 47-48).

제1권에서 그가 역점을 두고 설명한 부분은 조선의 종교이다. 그는 유교와 불교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샤머니즘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샤머니즘의 "진정한 성직자들"인 무당과 판수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미신에 쓰는 금액이 아주 크며, 황실도 주술사들에게 놀아나 엄청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1권에서 서울의 풍물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는 기존 저술들의 설명들에 자신의 관찰들을 추가했다. 이미 서양의 관찰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듯, 그 역시 1) 서울의 집이라는 것은 움막이나 다름없다, 2) 서울의 길들은 모두 작고 좁으며 "쓰레기들이 1년 내내 쌓여 있어 더러운 데다가 종종 넘쳐흐르기도 하는 하수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길들보다 더 더러운 길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고, 서울이 내뿜는 냄새는 참으로 참기 힘들다. 공기 전체가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3) 조선인들의 더러움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이며, 조선인들은 먹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씻지 않는다, 4) 상거래 때 파는 쪽은 엄청난 가격을 제시하지만 사는 쪽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5) 지배계층은 노동을 천시하고 싫어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러한 성향은 행정 전반에 만연해 있어서 내부는 무질서하다," 6) 양반은 극빈에 빠지는 경우에도 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대신에 잘 사는 친척친지에게 빌붙어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부유한 양반의 집에는 그러한 류의 식객들이 들끓는다, 7) "꼬레아 여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하며,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꼬레아에서처럼 엄격하게 여인들의 생활을 격리시키는 곳은 없다" 등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는 자신이 알현한 고종에 대해 비교적 좋게 썼다. "〔황제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항상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덕망 그리고 동양적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 〔…〕 황제는 그의 생존과도 관련된 모든 불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마치 그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전혀 무관한 듯이, 또 바깥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의 정신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듯이 항상 침착하였다"고 회상한 것이다. 그는 "황제는 습관적으로 밤에 직무를 보며 따라서 그가 주재하는 회의는

거의 대부분 밤시간에 열렸다"고 덧붙였다(로제티 1996, 89-90).

제2권은 주로 조선이 개항하는 과정을 설명한 데 이어, 개항한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 대한제국의 성립이 선포된 1897년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눠 설명했다. 여기서 대한제국의 수립이 선언되기 이전 시기에 대한 저자의 설명들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기로 한다. 그것은 이미 많은 서양의 관찰자들이 지적했던 매관매직에 관해서다. 그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 관직매매는 막강한 권력을 쥔 몇몇 관리들과 왕실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개입을 통해 생겨났다. 관직의 매매는 사실상 매매라는 개념을 넘어서 차라리 임대차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새로 임용된 관리는 그 자리에 2~3년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세력가가 돈을 더 긁어모으고 싶을 때에는 그 자리에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된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로제티 1996, 226).

그러면 대한제국의 수립이 선언된 이후에 조선의 모습들에 대해 그는 어떻게 설명했던가? 대한제국의 수립과 더불어 이제 광무황제라고 불린 고종은 광무개혁이라고 불린 개혁들을 추진했는데, 그것에 대해 그는 어떻게 평가했던가?

그는 우선 조선에 "근대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 표징으로, 지난 날과는 달리 백성들이 고관들의 행차에 더 이상 멈춰서지 않는 현실 그리고 "서울이 서구적 면모로 탈바꿈한 사실"을 지적했다(로제티 1996, 42). 그는 또 새로운 제도적 개혁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도량형을 다루는 중앙관청도 있었다는 것은 놀랍다"고 평가했다(로제티 1996, 227). 그러나 그는 1898년 1년 동안에만 아홉 차례나 개각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경제적 무질서를 야기시켰을지 상상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나라가 "완전한 무정부상태로 빠져들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 황제의 뜻은 후궁들과 내시, 궁정신하, 역술가들이 좌우하였다. 대신들은 그들이 속한 당파와 그 동조자들의 [괴뢰]에 지나지 않았다. […]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의 속도를 가속화할 뿐이었다. 이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은 땀 흘려 일하며 세금을 내고도 굶어죽기까지 하였다(로제티 1996, 228-235).

그는 점술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점술가들과 예언자들 및 심령술사들이 〔…〕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다. 〔…〕 꼬레아의 재판과 외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점술가들의 역할이다. 점술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시간에 한 마디만 해주면 재판의 지연이나 소송의 번거러움이 감해질 수도, 심지어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로제티 1996, 232)

그는 정부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는 지난 날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썼다. 조선에서의 세금징수를 "약탈"이라고 정의한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국민들은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아사 직전 상황에 놓여있다. 세금의 징수는 가장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 〔지방의 행정관들은〕 중앙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거두어들일 책임을 지고 있다. 세금의 총액이 사전에 지방별로 세세히 결정되어 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할당된 금액을 서울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해당 금액의 채무자로 간주된다.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파면, 투옥, 유배 등의 처벌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방의 행정관들은 자신의 상하관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 결과〕 1년 내내 고생스럽게 땀 흘린 불행한 농부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수확률의 1/10에 대한 권리 뿐이다(로제티 1996, 239-249).

그는 광무개혁 이후에 형법체계와 행형(行刑)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1심재판소 위에 항소법원 및 최종심으로서의 특별재판소가 발족했으며 판사와 검사 등의 새 직제들이 마련됐고 연좌제와 같은 잘못된 제도는 폐지됐음을 역시 인정했다. 사형의 방법도 민간인의 경우에는 교수형 군인의 경우에는 총살형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들이 전혀 발표되지도 적용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흔하며, 피고인은 물론 증인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악랄하고 잔인한 고문"은 계속됐고, 아주 더럽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감옥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꼬레아는 형벌이 과중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로제티 1996, 259-25).

그는 국방제도에 있어서도 "개혁"이 시도됐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정한 의미의 해군은 여전히 창설되지 못했으며, "바다에 대한 무지는 더욱 커졌다."(로제티 1996, 274, 283-284) 이것들

에 비해,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그는 인정했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 외국인들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관리들을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학교들, 법부의 관리들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학교, 우편관리들을 양성하기 위한 우편학교 등이 설립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우편 전신 전보 철도 전차 전등, 그리고 해상에서의 정규항로 등이 개설됐으며, "개항장"이라고 불린 항구들을 중심으로 해외와 무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했다(로제티 1996, 301-313, 355-393).

분쉬의 편지들과 일기. 대한제국 시기에 관한 또 하나의 관찰은 고종의 시의로 봉직했던 독일인 리하르트 분쉬(Richard Wunsch)에 의해 제시됐다. 그는 부모와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에, 그리고 일기에, 그때의 조선상황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이것들을 그의 딸 게르트루트 클라우센-분쉬(Gertrud Claussen-Wunsch)가 엮어 『동아시아의 의사』라는 제목 아래 독일에서 출판한 것이다.[22]

리하르트 분쉬는 1869년에 슐레지엔(Schulesien) 지방의 히르슈베르크(Hirschberg)에서 제지공장을 경영하던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894년에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외과의사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교의 은사 헬페리히(Helferich) 교수의 추천과 도쿄대학의 벨츠(Bältz) 교수의 주선으로 고종의 시의로 임명됐다.

그는 32세이던 1901년 11월 2일에 조선에 도착했다. 그는 국왕의 시의가 됐다는 사실에 고무됐으며, 국왕의 시의라는 직위를 활용해 조선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보람을 느꼈다. 실제로 1902년 여름에 조선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그는 방역에 필요한 대책들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고 환자들의 치료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후원을 얻고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1905년에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외국인인 그에게 출국을 종용하자 그는 4월 23일

22) Gertrud Claussen-Wunsch, *Arzt in Ostasien*(1976). 이 책의 방역본은 다음이다. 김종대(金鍾大) 옮김, 『고종의 독일인의사 분쉬』(서울: 학고재[學古齋], 1999). 역자는 원서가 독일의 어느 출판사에서 발행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역자의 서문에 따르면, 자신의 역본은 완역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하 분쉬의 경력은 위와 같음, 7-10쪽에 소개되어 있다.

에 일본으로 떠났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유럽으로 돌아갔다가 1908년에 당시 독일의 조차지였던 중국 청도에서 일자리를 얻어 다시 아시아로 오게 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장티푸스에 걸린 그는 1911년에 향년 41세로 별세했다. 비운은 계속됐다. 그가 별세한 직후 독일로 돌아간 어린 아들이, 그리고 이어 미망인이, 그의 뒤를 따른 것이다.

분쉬의 편지와 일기를 몇몇 주제들에 초점을 맞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조선의 풍경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우선 자신의 첫 기착지인 제물포와 그 주변에 대해, 독일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넓은 항구에 수많은 작은 배들이 보였고,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인 섬이며 낮은 섬들이 먼 바다에 흩어져 있어, 항구가 마치 내륙의 호수처럼 보였습니다. 공기는 맑고 신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앞에서 살핀 서양인들이 이미 지적했듯, 이곳에서 "짚으로 지붕을 이은 나지막한 토담집들"을 보았다(Wunsch 1976, 32).

그가 도착한 1901년 11월 2일이면 서울과 제물포 사이에 기차가 개통된 때(1900년11월 12일)로부터 1년이 채 안된 때였다. 그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으며, 운행시간은 1시간 45분이었다. 우리가 제2회 그리고 이 회의 앞에서 보았듯, 서양인들은 제물포에서 마부가 끄는 말을 타거나 교군들이 이끄는 가마를 타고 입경했었는데 이제 그는 기차로 입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Wunsch 1976). 이러한 변화는 대한제국 아래서의 "근대화"의 한 징표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풍경으로부터 그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부모에게 보낸 편지(1901년 11월 3일)에서, 그는 자신이 "이 나라의 비옥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어 있습니다"라고 썼다. 서울에 대해 "높은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멋진 계곡에 있습니다"라고 썼으며, 남산에 대해서는 "숲이 울창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독일에 살고 있는 자신의 연인 마리 숄(Marie Scholl)에게 보낸 편지(1904년 9월 18일)에서, "저는 곧 옷을 갈아입고 말을 풀어 아름다운 가을저녁을 바람처럼 달려볼까 합니다. 이 곳의 저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라는 표현으로 서울근교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Wunsch 1976, 134).

둘째, 그는 서울이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도시이며 조선사람 역시 그러하다고 썼다. 자신의 남동생 후고(Hugo)에게 보낸 날짜 미상의 사진엽서에는 그는 "서울의 길거리 청소는 견공(犬公)들에게 맡겨놓은 상태다. 곳곳에 널린 대변을 개들이 먹어치우니, 길의 청결 여부는 견공의 식욕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썼다

(Wunsch 1976, 33). 그는 또 "한국정부는 위생문제에 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사는 구역은 매우 깨끗하고 밝은데, 한국인들은 게으름에 빠져서인지 그런 것이 눈에 뵈지 않나 봅니다"라고 썼다(Wunsch 1976, 69-70). 1902년 8월 16일의 편지에서, 그는 참외철의 풍경과 관련해 "요즈음 길에서는 참외를 무더기로 내놓고 파는데, 한국사람들은 참외를 마구 먹어 누구를 막론하고 설사를 합니다. 길 도처에서 설사하는 광경을 볼 때엔 식욕이 싹 가십니다"라고 썼다(Wunsch 1976, 74). 한 여성환자를 그녀의 집에서 치료한 그는 그녀와 그녀의 거실에 대해 1902년 3월 12일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이 환자는 […] 바닥에 더러운 이불 몇 장을 덮고 누리끼리한 똥물 속에 누워있었다. 대소변에 푹 절은 붕대를 감은 남편은 작은 천조각으로 오물을 닦아내 접시에 들고 우리 앞에 서서 이야기했다. 몸서리치는 악취가 났고 여인은 간간이 신음소리를 냈다. 방의 벽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기름으로 얼룩진 종이로 덧발라놓았다(Wunsch 1976, 169).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을 여행하던 때 어느 조선사람 집에서 잠을 잤던 경험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다. 1903년 5월 31일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벌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빈대 벼룩 바퀴벌레 따위가 우리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라고 썼다(Wunsch 1976, 87).

셋째, 그는 조선사람들의 도벽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우선 그의 요리사가 집안의 음식재료들을 자주 훔쳐갔다. 닭고기국을 끓여왔으나 국에 닭고기가 한 점도 보이지 않았던 경우를 그는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그는 "음식재료를 부지런히 훔쳐가는" 요리사에 견디다 못해 마침내 해고하고, 대한제국 황실의 "으뜸시녀"인 손탁(Antoinette Sontag) 여사가 마련한 유럽인들을 위한 숙식소에서 식사를 했다.[23]

---

23)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공사 베베르의 보호를 받았을 때 베베르의 처형인 독일 알사스 출신의 중년여인 손탁이 시중을 들었고, 그 인연으로 고종은 환궁과 더불어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뒤 그녀는 유럽으로 건너가 황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고종을 도우려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녀는 만년에 지중해 리비에라 해안에서 부유하게 여생을 보냈다(Wunsch 1976, 67).

땔감창고와 석탄창고 및 과수원도 도둑을 자주 맞았으며, 심지어 말에게 먹일 건초더미도 도난을 당했다. 그는 1879년부터 1898년까지 도쿄에 체재했고 1901년에 서울에 와서 남산에 살던 독일인 궁정악장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가 도둑맞은 사례를 덧붙였다. 대한제국의 국가를 작곡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는 "가족과 떨어져 적적하게 살고 있어 살아움직이는 것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인지 소규모로 양돈을 시작했는데, 돼지들이 어느 정도 살이 오르자 차례로 세 마리나 도둑을 맞아버렸다." 그래서 에케르트와 그는 독일어 교사 볼리안(Johnnes Bolljahn)과 함께 1902년 3월 초의 어느 날 남은 돼지를 잡아 먹었다(Wunsch 1976, 55-56).

넷째, 그는 조선사람들이 질병과 의학에 너무 무지했다고 지적했다. 1) "해부를 금지하고 있으니 의학이 발전할 리가 없으며 해부학의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다." 2) 조선사람들은 "진료비를 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뿐더러 외국인의사한테서 약 한 병쯤 선물 받는 것은 예사로 안다." 3) "조선의 천연두환자들은 위생주의 조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에 나돌아다닌다." 4) "천연두로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데, 미신 때문에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짚과 광목으로 싸서 성문 앞에 있는 나무에 걸어둔다." 5) 황태자비의 병을 70여 명의 의사들이 치료했으나 결국 병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등등의 사례들을 그는 지적했다.

다섯째, 그는 조선사람들이 "느리게" 행동하며 "게으르다"고 지적했다. 1901년 12월 27일의 편지에서, 그는 "여기서는 모든 일이 기가 찰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썼으며, 조선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행동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찰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들은 대한제국의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에 관한 그의 관찰들이다. 우선 국내정치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1. "지금 이곳의 상황은 독일의 1848년 3월 혁명의 시기와 흡사합니다. 황제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 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기구가 불안정하고, 신용도 없고, 고관에 줄을 대고 아졸들이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1901년 12월 10일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
2. "〔탁지부(度支部: 오늘날의 재정경제부: 필자 주) 대신〕 이용익(李容翊)은 황실의 바닥난 금고를 채우려고 백성을 극단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조치를 취했다." (1902년 12월 5일 일기).

3. "나라가 〔재정적으로〕 놀랍게 메말라 버렸고 남부지방에서는 세금이 혹독하다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정부는 〔병원을 짓는 것과 같은〕 일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유치한 일에 수천냥을 바치니 계산능력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 얼마 전에는 궁중에서 영사기를 샀는데, 신품이라고 4,000마르크를 주었다지 뭡니까. 몇 년 전 파리에서 500프랑밖에 안 하던 낡은 것으로 램프도 없는 망가진 기계였는데 말입니다. 거의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는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기꾼에게 걸려듭니다." (1903년 2월 6일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
4. "한국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이며 의식, 죽은 황태자비의 묘지 선택에 분주하며, 장례식 경비로 10만엔을 쓸 것이라고들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지요. 그러면서 유용한 일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1904년 11월 30일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Wunsch 1976, 138-139).

이제 황제라고 불리는 고종의 모습은 그에게는 "환자"로 비쳐 있다. 1902년 11월 20일에 부모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한국인 의사 6~7명이 날마다 황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은 황제의 양팔을 매우 진지하게 진맥하는데, 진맥이 끝나면 1/4리터나 되는 괴상한 약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진료를 마칩니다. 그렇게 하여 황제는 그날 겨우 회복하고 다음날 똑같이 진찰받고 약 마시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저녁 늦게 황제 앞에 불려가 그의 만성감기에 대해서 아주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황제에게 생활방식이 뒤틀려 그런 감기에 걸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황제는 어려운 정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내 지독하게 뜨거운 열을 뿜는 두 쇠난로 사이에 앉아 있는답니다. 그리고 황제가 집무하는 공간의 바닥은 차고 벽은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기름종이로 가장자리를 둘러쳤습니다. 황제는 낮에 잠을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4시나 동틀 때까지 쭈그리고 앉아 있으며 가끔 마당을 가로질러 궁 안의 이 건물 저 건물로 건너다닌다고 합니다. 쉽게 차가워지는 비단 옷만 입고 있는 것도 발병의 원인이었습니다(Wunsch 1976, 79).

이어 그는 대한제국의 국제관계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1903년 9월 11일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언젠가 한번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쓴 데 이어, 1903년 12월 31일에 부모에게 쓴 편지에서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 신문은 온통 호전적인 붉은 색 구호로 뒤덮여 있고, 사람들은 언제 총성이 나나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썼다. 실제로 1904년 2월 8일에 제물포항에서 두 나라 사이에 야간전투가 시작됐으며 2월 9일에 정식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그는 곧 서울주재러시아공사관에 오는 모든 전보들을 일본이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러시아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연인 숄에게 보낸 1904년 4월 25일자 편지에서 지적했다. 1905년 3월 30일의 편지에서, 그는 이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조선사람들은 벌써 일본사람들의 잡일꾼들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Wunsch 1976, 150).

휘갬의 『만주와 코리아』. 분쉬가 조선에 도착한 1901년의 여름에 조선을 방문하고 견문록을 남긴 서양인이 영국의 신문기자 헨리 제임스 휘갬(Henry James Whigham)이다. 페르시아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전개한 각축을 현지방문을 통해 분석한 『페르시아 문제(*The Persian Problem*)』의 출판(1903년)으로 명성을 얻은 그는 역시 러시아와 영국의 또 하나의 각축장이던 만주와 조선을 방문하고 1903년에 『만주와 코리아(*Manchuria and Korea*)』를 집필했다.[24]

이 두 책에서 저자가 유지한 일관된 자세는 자신의 조국 영국과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 그리고 영일동맹의 상대국인 러시아와 러시아의 공동보조국들인 프랑스와 독일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표현하곤 했다. 예컨대, 러시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음모"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이러한 자세에서, 그는 조선의 국내외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조선사람들의 "상냥하고 친절한" 성품을 칭찬했다. 조선사람들은 "침략성 또는 반외세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버섯 모양의 비참한 오막살이들"이고 조선사람들이 입은 옷들은 "우스꽝스럽다"고 비웃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 이상으로 "유교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사람들

24) H. J. Whigham, *Manchuria and Korea* (London: Isbister and Company, Ltd., 1904). 이 책은 근서 동아세아자료총서 77(서울: 경인문화사, 2001)에 James Saxon Childers, *Through Oriental Gates: The Adventures of An Unwise Man in the East* (London: D. Appleton and Company, 1930)와 합본되어 있다.

의 관습을 바꾸기란 중국사람들을 그들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조선사람들은 "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 "외부세계의 문명"에 하루 빨리 굴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Whigham 1904, 183-185).

그는 조선의 정부와 지배층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썼다. 황제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이나 충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가 퇴위를 당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계급은 탐욕스럽고 백성들의 증오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제와 그의 측근들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돈을 받게만 되면 열강이 조선으로부터 어떤 이권을 얻어가든 개의하지 않았고 조선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도 개의하지 않았다고 조롱했다. 돈을 받는 경우에 상대방에 주는 이권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을 받고도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돈을 황제는 궁전에 몇 개의 방을 증설하는 데 쓰는 것을 보면, 바보스럽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Whigham 1904, 185-186).

이러한 관찰들로부터, 그는 이 나라의 독립은 오직 외양일 뿐이라고 말하고, 외양에 지나지 않는 독립이라도 유지하려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뒷받침하는 프랑스의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전적으로 열강의 상충하는 야심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달렸다고 그는 전망했다(Whigham 1904, 201-203).

2. 서양 신문들의 러일전쟁 보도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은, 유럽에서 청일전쟁이 불러일으켰던 관심보다 훨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청일전쟁이 아시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음에 비해 러일전쟁은 아시아국가와 유럽국가 사이의 전쟁이었으며 특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국제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신문들. 유럽국가들 가운데, 적어도 신문보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국가는 영국이었다.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외교에 앞장을 서고 있었으며 그러한 틀 안에서 이미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화보중심 신문들은 러일전쟁을 앞둔 시점에서의 조선에 대해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의 조선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것들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후진적이며 야만적인 나라다. 1896년 4월 20일자 『더 그래픽』은 "세금징수원들이 배를 타고 해안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는" 그림을 게재하고, 거기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세금징수는 극심한 착취 그 자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신문은 1901년 11월 23일의 기사에서 "조선인은 게으르고 겁이 많다"고 쓴 데 이어 상류계급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잘 사는 반면에 하류계급은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썼다. 1903년 11월 7일의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죄수에게 야만적으로 태형을 가하는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 1904년 1월 23일의 주간화보신문 『더 스피어(*The Sphere*)』는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김장춘 2008, 90-104).

둘째, 조선인들은 여러 종류의 외국인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몰려든다. 1902년 10월 11일의 『더 그래픽』은 멋진 정장차림의 영국인이 측량기를 놓고 작업하는 장면을 약 15명의 조선사람들이 흥미 있게 바라보는 그림을 게재했으며, 1904년 1월 23일의 『더 스피어』는 서양의(영국의?) 한 특파원을 약 18명의 조선사람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림을 게재했고, 1904년 4월 30일의 『더 스피어』는 평양에 집결한 일본군을 수십명의 조선사람들이 대동문(大同門)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러한 그림이나 사진에, 조선사람들의 집들과 옷차림들은 아주 초라하게 비쳐져 있다(김장춘 2008, 90-122).

셋째, 일본군이 훈련과 장비 모두에서 잘 준비돼 있음에 반해 러시아군은 방어와 물자공급 모두에서 "허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1904년 5월 7일자에서 일본군은 "의기충천"하다고 설명했고, 1904년 5월 14일자에서 일본군은 "뛰어난 기술로" 다리를 잘 놓아 병사들의 이동을 쉽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며, 1904년 5월 21일자에서 일본군은 전화를 비롯한 통신시설에서 러시아군보다 앞서 있다고 보도했다(김장춘 2008, 125-130).

디오시의 『새로운 극동』. 영국 화보들의 이러한 보도는 결국 일본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정부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런던의 일본협회 회장이서 디오시(Arthur Diosy) 역시 자신의 저서 『새로운 극동(*The New Far East*)』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1900년에 출판된 이 책의 제2판에서 조선을 "애처로운 나라"라고 부르고 조선사람들을 "더러운 인종"이라고 불렀으며, 대한제국은 말로만 "제국"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고 잘못 통치되고 있다"고 폄하했었다. 대조적으로, 그는 일본이 서양의 방식에 따라 자신을 문명의 세계로 발전시키면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있다고 칭찬했었다.[25] 이러한 식견을 지녔기에, 그는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04년 3월에 출판된 이 책의 제4판에서 영국의 일본과의 동맹을 높이 찬양했다.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극동에서 러시아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게 된 "선명한 노선"을 걷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극동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러시아의 "공갈"에 직면하게 되자 전쟁이 일어났다는 논리로 일본을 옹호했다 (Diosy 1904).

매켄지의 『도쿄에서 티플리스까지』. 대조적으로, 영국의 『더 데일리 메일(*The Daily Mail*)』은 일본을 비판하고 조선에 동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신문은 1900년부터, 스코틀랜드계 영국인으로 1869년에 캐나다 퀘벡에서 출생한 프레데릭 아서 매켄지(Frederick Arthur McKenzie)를 극동특파원으로 기용해 극동의 정세를 보도해왔다. 마침 러일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자, 그는 1904년 1월에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와서 1905년 4월까지 이 전쟁을 취재했으며 곧 러시아 통치하의 코카서스에서 제정(帝政)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반란의 중심지들 가운데 하나인 티플리스로 가서 혁명적 분위기를 취재해 이 책을 출판했다.[26]

이 책은 일본 전국을 휩쓴 전쟁 광기(狂氣)의 묘사로 시작했다. "죽여라 죽여라! 칼이 부러질 때까지 죽여라!"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들, "복수하자 복수하자. 천황폐하의 적들을 모두 죽이자. 만세!"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른들, 전장으로

25) Arthur Diosy, *The New Far East*, 4th ed. (London, Paris and New York: Cassell and Company, Ltd., 1904), ix.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58(서울: 경인문화사, 2004)로 재간됐다.

26) 최기영(崔起榮), 「매켄지: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서양인」, 『한국사 시민강좌』 제34집 제1호(2004년 2월), 106-115쪽. Frederick Arthur McKenzie, *From Tokyo to Tiflis* (London: Hurst and Blackett, 1905).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28(서울: 경인문화사, 2001)로 재간됐다.

떠나는 손자에게 "나는 네가 살아돌아오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러시아인 한 놈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여섯 놈을 죽여라. 그래야 너는 우리 집안사람임을 증명하게 된다"고 말하는 할머니, "러시아 첩자들을 모두 죽이자"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러집회(反露集會)들 등에서, 매켄지는 일본이 전쟁과 전쟁의 연속으로 치달릴 것임을 예감했다(McKenzie 1905, 1-15).

저자는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기존의 관찰에 동의했다. 그 역시, 1) 길은 좁고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며 역한 냄새를 내뿜고 있다는 것, 2) 사람들은 불결하고 겁이 많다는 것, 3) 집은 움막 같으며, 여자들은 가슴을 내놓고 다닌다는 것, 4) 조선은 지독히 가난한 나라라는 것 등에 대해 자세히 썼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그러한 현상을 "아시아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나 중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서울에 근대식 학교들과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증가하는 문명의 적용"과 "빠르게 진행되는 진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McKenzie 1905, 22-29). 그러나 그는 조선정부의 악명 높은 "쥐어짜내기"에 대해서는 다른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저자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평안도 순천에서 활동하던 한 미국여성을 만나, 러시아군인들이 소문과는 달리 절도(節度) 있게 행동했으며 용감하게 싸웠다는 증언을 듣고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프랑스의 화보들. 프랑스 역시 러일전쟁에 대해 자주 보도했다. 파리에서 발행되던 화보 중심의 신문 『라 비 일뤼스트레(*La Vie Illustrée*)』는 개전 직후인 1904년 2월 19일자에서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는 장면을 컬러로 보도했다. 곧이어 역시 파리에서 발행되던 『르 프티 파리지엥』을 비롯한 몇몇 신문들은 특파원들과 사진기자들 및 영화촬영기사들을 조선과 만주로 보냈다.

이 신문들은 초기에는 러시아병사들이 조선인 마을들을 습격하는 그림들을 게재했다. 1904년 3월 27일자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의 경우, 조선사람이 공포에 떨고 좌절에 빠진 장면을 전면에 게재했는데, 이때 약 100만 부의 부수를 기록하던 이 신문을 접한 프랑스의 독자들은 러시아에 대해 매우 나쁜 감정을 갖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의 한 신문은 일본병사들이 조선인들을 죽이는 그림

도 게재했다. 『라 크롸 일뤼스트레(*La Croix Illustrée*)』는 일본병사들이 3인의 조선 애국자들을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의 산 비탈에서 "러시아의 스파이들"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총살하는 사진을 크게 보도한 것이다. 프랑스의 신문들이 일본인들에게 희생되고 있는 조선인들의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은 확실했다(Shin Yong-suk 1986, 58-60).

미국 소설가 런던의 『불 속의 코레』. 미국의 기자들도 러일전쟁의 취재에 뛰어들었다. 그 대표적 기자가 잭 런던(Jack London)이다. 그의 기사들이 파리의 한 출판사에 의해 『불 속의 코레(*La Corée en Feu*)』라는 단행본으로 묶여 출판됐다.[27]

잭 런던은 187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빈민가정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흑인노예 출신의 양어머니 손으로 넘어갔다가 생모의 재혼에 따라 역시 빈곤하고 불구인 계부의 가정에서 컸다. 그는 13세에 공장노동자로 취업하면서 노동자들의 고된 생활에 동정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시절은 미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빚어낸 계급투쟁이 격심했기에, 그는 빠르게 사회주의로 기울었다. 그는 곧 바다에서 굴을 훔쳐파는 일에 발을 디뎠으며, 이 일을 계기로 선원이 돼 일본까지 여행했다. 그러나 귀국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896년에 사회노동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입학했다. 그렇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퇴교했다. 그는 곧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일던 황금찾기의 열기에 휩쓸렸으나 빈털터리가 된 채 귀향했다.

그는 방랑자처럼 다시 외국길에 올랐다. 1899년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네덜란드계 남아프리카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보어전쟁(the Boer War)에 종군기자로 참가하기 위해 우선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전쟁은 사실상 끝나 종군이 무의미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런던의 빈민가들을 돌아다녔으며, 여러 잡지들에 단편소설들을 발표했는데 호평을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특히 1903년에 런던의 빈민가를 주제로 삼은 『황야의 부름(*Call of the Wild*)』을 출판했을 때 격찬을 받아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

27) Jack London, *La Corée en Feu*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82).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방역됐다. 윤미기(尹美基),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서울: 한울, 1995). 필자(김학준)는 이 방역본에 의존했다.

이 시점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는 그를 특파원으로 기용해 조선으로 보냈으며, 그는 일본을 거쳐 1904년 2월 하순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그는 곧 서울을 거쳐 전투가 치열히 전개되던 평양에 도착했고 거기서 평안도의 여러 전장들을 순회했으며 1904년 6월 초에 만주의 안동까지 방문했다. 그는 러일전쟁의 취재를 마친 뒤인 1908년에 출판한 『강철 군화(*The Iron Heel*)』라는 소설로 "사회주의 자본론"을 저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16년에 향년 40세로 별세한다.

그가 러일전쟁의 특파원으로 쓴 기사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일본에 대한 경외심의 표출과 조선에 대한 동정심의 결여였다. 이것은 예상 밖이었다.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그였기에 제국주의국가인 일본을 비판하고 약소국가인 조선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일본군에 대해 그는 1904년 3월 4일에 서울에서 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나는 일본군대보다 더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군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 우리 병사들 같았으면 벌써 오래 전부터 장난치고 소란을 피웠을 텐데도 이 일본군들은 전혀 소란한 기색 없이 무섭게 진지했다. 〔조선의〕 민간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일본군대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돈을 빼앗지 않았으며 물건들도 약탈하는 법이 없었다. 일본은 1894년의 〔청일전쟁 때〕 얻은 명성, 즉 그들이 가져가는 것 모든 것을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법칙을 지금도 증명해보이고 있는 중이었다.
>
> 그들은 19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용구를 지고서 힘든 기색 없이 행군하였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지친 기색 없이 질질 끌지 않고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행군하였다. 군사들이 혁띠를 고쳐 맨다거나 군화끈을 다시 매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쇠로 된 나침반이 쨀랑거리는 소리라든가 장비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일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처럼 움직이는 단체였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능률있게 일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한 목표 아래 모두 같이 움직이는 것이었다(런던 1995, 34-35).

일본군에 대한 그의 호의적 평가는 1904년 5월 1일에 만주 안동에서 쓴 기사에서 다시 나타났다. "일본군은 절대로 중단하는 법이 없고 망설이는 법도 없었다 〔…〕 일본인들은 지구멸망론만이 그들을 멈출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애국은 그들의 신앙이어서 다른 민족이 신을 위하여 죽듯이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

친다"고 쓴 것이다(런던 1995, 171).

일본군에 대해 이처럼 칭찬을 한 반면에 그는 우선 러시아군을 좋지 않게 묘사했다. 조선인들 사이에는 "러시아군의 잔학성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으며" 따라서 "러시아군에 대한 두려움은 맹목적이었다"고 쓴 것이다. "만약에 러시아군 같았으면 …" 하는 말로써 조선인들은 러시아군에 대한 "공포"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유럽인들과 미국인들도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불안한 기색으로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는 덧붙였다(런던 1995, 34-35).

조선에 대한 그의 인상은 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는 우선 서울의 "좁은 길"을 지적한 데 이어 "너무나 게을러서 길을 안 비켜주는 모든 무감각한 한국인들"을 꼬집었다. 평양의 길에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표시했다. 1904년 3월 5일에 평양에서 쓴 기사에서, 그는 평양의 국도를 "도로라고 하기에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웅덩이의 연속에 불과하다 […] 비가 조금만 와도 이 길은 진흙으로 가득찬 강으로 변한다. 다리를 건널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겠지만 발목을 한두 개 부러뜨리는 게 다반사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런던 1995, 37-38).

그는 조선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롱했다. 조선인에게는 "기개가 없고, 일본인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맹렬함이 없으며 […] 매가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민족을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들 중에서도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비능률적인 민족"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이어 조선인은 "무척이나 겁이 많다.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게으른 취미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사진을 찍히면 혼령이 빠져나가며 목숨을 잃는다고 잘못 믿고 있다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한 소년 앞에서 사진기를 들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일화를 소개했다(런던 1995, 40-41, 113-114).

조선인에 대한 흉보기는 계속됐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훔치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하고, 말의 주인이 말에게 준 먹이를 마부가 훔쳐가는 실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조선인의 개고기 먹는 습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 한국의 개들은 꼭 개하고 이리를 섞어놓은 것 같다. 한국 개의 모습에서는 유럽 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좌우지간 어떤 개라 할지라도 이리의 모습은 남아 있다. 바로 그 점이 한국 개의 전반적인 특성이다. 개라는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

> 서는 이리의 성격이 압도적이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람은 아시아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러하므로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하여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한, 즉 별미로써 먹는다. 봄에 어린 개는 우리에겐 같은 시기의 어린 양과 같은 것이며, 늙은 개는 그들에겐 우리가 매일 먹는 양과 같은 것이다(런던 1995, 111-112).

그는 이미 많은 서양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듯, 조선에서 지배계급이 백성들을 위압하고 착취하는 현실을 직시했다. 심지어 일본군인들이 조선의 민간인들로부터 물건을 가져가는 대신에 갚아준 돈의 대부분을 관리들이 빼앗아갔다고 폭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양반들은 모두가 도둑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이 자기들 것을 으레 빼앗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백성들은 지배계급이 도둑놈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다."(런던 1995, 131)

그렙스트의 『코레아 코레아』. 스웨덴의 신문기자 아손 그렙스트(William Daniel August Ason Grebst) 역시 이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의 상인"으로 위장한 채 1904년 8월 20일에 조선에 입국했다. 그는 1905년 1월 초순에 귀국한 뒤 『코레아 코레아』라는 책을 출판했다.[28]

이 책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서양인들이 묘사한 조선인의 모습들과 거의 같다. 1) "생선은 쌀 다음으로 코레아 사람들의 주된 식품이다." 2) "〔부산의〕 거리는 좁고 불결했으며, 가옥은 낮고 볼품이 없었다. 〔…〕 사방에서 악취를 풍겼으며, 문밖에는 집에서 버린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 여기저기에 말라붙은 하수도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바닥에서 온갖 종류의 오물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3) "서울의 골목들은 완전한 미로를 방불케 했다." 4) "코레아에는 산업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 코레아의 기술은 낙후되어 보잘 것이 없다 〔…〕 노동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는 필수불가결한 것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데 전혀 정

28) 이 책의 방역본으로 다음이 있다. 김상열(金相悅) 옮김, 『코레아 코레아: 이것이 조선의 마지막 모습이다』(서울: 미완, 1986). 역자는 원서의 제목과 출판사 및 출판연도 등을 밝히지 않았다. 어떤 다른 출전에 따르면, 이 책은 1912년에 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요테보리(Göteborg)에서 출판됐다. 원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관찰한 코레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김학준)는 이 방역본에 의존했다.

력을 쏟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5) 조선에서는 미신이 횡행해 무당이 판을 치고 있었다. 6) "서울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가엾던 것은 거지아이들이었다." 등등이 그것들이었다. 그는 처음 보는 기관차를 "마술사"처럼 신기하게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다가 기관사가 장난삼아 환기통으로 연기를 뿜어내자 도망가느라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조선사람들, 그리고 사진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조선사람들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젖을 내놓고 다니는 조선 하층계급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는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책에서 두드러진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조선에 대한 동정심이었다. 그는 여러 곳들에서 일본의 "침략 야욕"과 일본인들의 "과오"를 비난했다. 특히 일본이 자신의 하층민들을 조선에 유입시켜 토지를 차지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조선인들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데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그렙스트 1986, 67-68).

IV. 조선의 일제 "보호국" 시기의 기록들

1. 미국과 영국 학자들의 조선정세분석

헐버트의 『대한제국의 멸망』.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보호국"이 된 뒤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로부터 상반되는 평가를 담은 책들이 출판됐다. 우선 호머 헐버트(Homer Bazaleel Hulbert)의 『대한제국의 멸망(*The Passing of Korea*)』을 검토하기로 하자.[29]

헐버트는 코리아를 사랑한 서양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인이

29)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Garden City, N.Y.: Doubleday, Page and Company, 1906). 이 책은 연세대학교출판부에 의해 1969년에, 그리고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44(서울: 경인문화사, 2000)로 재간됐다. 이 책의 방역본으로 다음이 있다. 신복룡, 『대한제국멸망사』(서울: 평민사, 1984; 서울: 집문당, 1999). 필자(김학준)는 연세대학교출판부 재간본에 의존했다. 헐버트의 생애는 다음에서 자세히 토론됐다. 김기석(金基奭), 「헐버트: 대한제국의 마지막 밀사」, 『한국사 시민강좌』 제34집 제1호(2004년 2월), 81-92쪽.

다. 1863년에 버몬트주에서 교육과 선교를 중시하는 부모 아래 태어나 21세이던 1884년에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했으며 유니언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의 조선과의 관계는 18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우리가 제2회에서 보았듯, 조선 정부가 육영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교사들의 파견을 요청했을 때 미국정부는 헐버트를 비롯한 세 명의 유니언신학교 학생들을 파견해, 그들은 그 해 7월에 조선으로 왔던 것이다. 그 뒤 그는 육영공원 교사로 봉직하면서 서양 학문을 소개한 교과서로 『사민필지(士民必知)』를 편찬했고 지리교과서로 『초학지지(初學地誌)』를 간행했으며, 대한제국의 수립이 선포될 무렵에는 한성사범학교 개교에 참여해 초대 교장을 맡았다. 언론에도 열정을 쏟아 『독립신문』의 영어판 편집과 인쇄를 담당했으며, 영문잡지 『코리아 총보(叢報: *The Korean Repository*)』를 경영했고 나중에는 『코리아 평론(*Korea Review*)』를 창간했다.

코리아를 깊이 사랑했고 코리아의 독립유지를 위해 헌신했던 그는 우선 2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코리아의 역사(*The History of Korea*)』를 저술해 코리아가 500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이며 코리언들은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독립적인 민족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30] 그는 또 일제의 조선침략에 맞서 궐기한 조선의 의병들에 대해 상세히 썼다.

이 책이 출간된 직후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에 의해 일제의 "보호국"이 되자 그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코리아의 멸망』을 출판했다. 그는 자신의 관심을 조선이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들을 찾는 데 두었다. 그는 무엇보다 양반이라는 말로 압축되는 지배계급의 부패와 무능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았다. 조정의 고관대작들로부터 지방의 아전들에 이르기까지 매관매직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벼슬을 사거나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돈을 백성들로부터 수탈하는 폐습이 결국 조선을 망국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이다(Herbert 1906, 50-61).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조선의 전면적 개혁을 지향했던 독립협회를 높이 평가했다(Herbert 1906, 148-168). 다른 한편으로, 그는 고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고종이 무능했고 취약했으며 미신에 빠져 지냈다는 서양인들의 지적은 풍설들을 액면 그대로 받

30) Homer 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5), Vol. 1, p. 7.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재간됐다. Clarence Norwood 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Seoul: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이 재간본에는 맨스필드주립대학(Mansfield State College) 교수인 편자의 서문과 헐버트의 경력이 포함됐다.

아들인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고종의 노력을 소개했다(Herbert 1906, 343-348). 그 다음으로, 그는 미국을 비롯한 열강이 일제의 조선침략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점에서, 그는 미국의 코리아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 조선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는 우선 조선의 모든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또 열강의 지원을 얻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의했다. 특히 미국인들을 비롯한 서양인들은 "조선인들이 지적으로 열등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으며, 타락하고 경멸을 받을 만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 아래서만 더 잘 살게 된다"는 일본의 선전에 기울어져 있음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조선의 독립을 살려보려는 헐버트의 노력은 1907년 5월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는 헤이그에 도착해 이상설 등 밀사 3인을 만나고 유럽의 외교관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경축행사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방한 중에 향년 86세로 별세하자, 죽으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생전의 뜻에 따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묘역에 묻혔다.

래드의 『이토 후작과 함께 코리아에서』. 헐버트의 견해에 상반되는 견해는 래드(George Trumbell Ladd) 교수에 의해 제시됐다. 그는 1842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1864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 있는 웨스턴 리저브 대학(Western Reserve College) — 오늘날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전신이다 — 을 졸업하고 1869년에 앤도버신학교(Andover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해 목사가 됐다. 그는 1881년부터 1901년까지 예일대학교의 철학교수로 봉직하면서 형이상학과 도덕철학을 강의했다. 예일대학교에서 봉직하던 때인 1895년부터 1896년까지 하버드대학교에서 윤리학을 강의했으며 1892년부터 1899년까지 일본과 인도에서 강의했다. 그는 실험심리학을 미국에 도입한 최초의 심리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도 꼽히며, 1905년에 예일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로 뽑혔고, 명예박사학위(LL.D.)를 받았다.

저자는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 계제에, 당시 일제의 조선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의 "비공식적 고문"의 자격으로 또는 "객원"의 자격으로 1907년 3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2개월에 거쳐 조선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조선방문 경험을 바탕 삼아 이 책을 썼다(Ladd 1908). 그는 1921년에 별세한다.

이 책은, 속표지의 바로 옆 쪽에 이토의 사진을 크게 게재한 데 드러났듯, 전반적으로 일본을 변호하고 특히 이토를 변호한 책이다. 그는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을 씀에 있어서 도움을 준 조선통감의 고문 스티븐스 변호사에게 특히 감사하다고 썼으며 본문에서는 스티븐스의 의견을 지지하는 뜻에서 스티븐스의 의견을 길게 인용했는데, 스티븐스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을 찬양하는 강연에 앞장을 섰다가 장인환 의사에게 암살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책이 친일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의 영향 아래 쓰여졌다고 매듭지을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이토를 높이 평가했다. 이토가 "언제나" "평화"의 편에 서서, 자신의 개인적 안위와 생활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평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일한 정치가였다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은 코리아를 "진정으로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토의 "진실한 욕구"에 감동을 받았다고 썼다. 이러한 인식을 지녔기에 그는 고종이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들을 보낸 것을 "치명적 과오"라고 폄하했다(Ladd 1908, 150-152).

저자의 친일적 역사관은 조선역사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는 우선 조선민족의 역사는 지배계급에게는 "실정(misrule)"의 연속이었고 피지배계급에게는 "빈곤과 억압과 피눈물"의 경험일 뿐이었다고 말하고, 조선에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국가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저자는 조선의 국제관계사를 일별하면서, 중국과 몽골 및 만주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조선을 심하게 괴롭혔던가를 강조한 반면에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해 아주 너그럽게 평가했다. 조선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근거로 삼아 일본에 대해 증오심을 표시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쳤다.

저자는 우선 청일전쟁에서 수행한 일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조선의 독립실현을 몇 세기에 걸쳐 방해한 외세, 곧 중국의 간섭을 영원히 제거시켰다는 논리였다. 저자는 이어 러일전쟁 발발의 책임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돌렸다. 러시아가 일본과 체결한 두 차례의 조약들(1896년 6월 9일의 Yamagata-Lobanoff Protocol 및

1898년 8월 5일의 Nishi-Rosen Protocol)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조선에 대해 공세적 외교를 편 결과, 특히 조선에서 부동항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보를 계속했던가를 길게 부연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변호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그는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호국"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했다. "조선의 현 정부 또는 문명체제 아래서는 조선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내재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으로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Ladd 1908, 250-251).

롱포드의 『코리아 이야기』. 국영사를 역임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King's College)의 교수 조지프 롱포드(Joseph H. Longford)였다. 그는 우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수행한 목적은 "코리아를 러시아에 의한 병합이라는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토가 조선에서 추진한 "개혁들"을 높이 평가한 뒤,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마침내 일제에 편입됨으로써 "영구한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았다.[31]

2. 서양 언론에 나타난 "보호국 조선"의 모습들

영국과 프랑스의 신문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의 신문들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나라 조선"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던가? 첫째, 특히 영국 신문들의 경우, 일제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것을 당연하다는 취지로 논평했다. 우선 1906년 3월 17일의 『더 스피어』는 "일본 보호 아래서의 조선은 비위생적인 습관을 버리게 될 것이고 특히 서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하수로 인해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쓰면서, "조선이 실제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장춘 2008, 144). 1908년 9월 26일의 『더 그래픽』은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을 개혁한 업적"을 보여주는 넉 장의 사진들을 게재하고, 다음과 같은 설명들을 덧붙였다:

지난 50년간 겨우 서구의 개발방식을 배워 익힌 일본이 조선에 축복을 부여하

31) Joseph H. Longford, *The Story of Korea* (London: T. Fisher Unwin, 1911), p. 351 and Chapter 16.

> 고 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커다란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토 〔통감〕 덕분에 2년도 채 못 돼 여러가지로 평화로운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조선에는 20만 인구의 서울 백성을 위한 제대로 된 보건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제국병원 의과대학에 조선인학생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향교에서 하는 유교식 교육제도가 신식교육으로 대체되었다. 〔…〕 학교의 화학실험실 칠판에는 서양의 화학공식〔이 …〕 쓰여있다(김장춘 2008, 148).

둘째, 그러나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경우, 조선인들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이 신문은 1) 1907년 7월 13일에, 고종이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3인의 밀사들이 한 곳에 모여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으며(김장춘 2008, 140), 이어 2) 1908년 8월 22일자에, 항일언론에 선봉에 섰던 『대한매일신보』의 편집국 간부들이 이 신문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던 영국의 항일언론인 베셀(Ernest Thomas Bethell)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만드는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김장춘 2008, 143).

프랑스 신문들이 보인 태도 역시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프랑스의 신문들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압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항일운동을 보도했다. 『르 프티 주르날』은 1) 1907년 8월 4일에,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에 항의하는 대한제국의 군인들을 학살하는 삽화와 기사를 게재했으며, 2) 1909년 12월 12일에, 일본이라는 호랑이와 이리가 조선사람들을 괴롭히는 삽화와 기사를 게재했다(Shin Yong-suk 1986, 59).

밀러드의 『새로운 극동』. 일제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데 대한 비판과 항의는 우선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밀러드(Thomas F. Millard: 1868-1942),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핀 영국의 언론인 매켄지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우선 뉴욕 『헤럴드 트리뷴(*Herald Tribune*)』의 중국특파원인 밀러드의 『새로운 극동(*The New Far East*)』을 살피기로 한다.[32] 저자는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 속에서

32) Thomas F. Millard, *The New Far East: An Examination into the New Position of Japan and Her Influence Upon the Solution of the Far Eastern Ques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6). 이 책은 2005년에 Adamant Media Corporation에 의해 Elibron Classics Replica Edition의 하나로 재간됐다.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이후의 극동을 "새로운 극동"이라고 부르면서, 일제의 제국주의와 영토적 팽창정책으로 말미암아 극동은 더욱 불안해졌으며 만주와 중국의 장래도 위태로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일제가 "코리아의 독립을 찬탈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제국의 황제와 내각에 대한 "협박"과 "강압"을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보호"하고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한제국의 신민들을 "피정복자들"로 다루고 있으며 일본의 하층민들을 조선에 유입시켜 조선의 토지를 강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매켄지의 『베일이 벗겨진 동방』 및 『코리아의 비극』. 밀러드의 뒤를 이어 매켄지는 저서 『베일이 벗겨진 동방(*The Unveiled East*)』, 논문 「코리아에서의 일본의 식민정책("The Colonial Policy of Japan in Korea")」, 그리고 저서 『코리아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을 통해 일제의 침략야욕을 공격함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몰락에 대한 동정심을 표시했다.[33]

우선 앞의 책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책은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결된 이후 일본이 "점진적으로 드러내던 […] 영토적 팽창과 이익의 독점"을 공격하기 위해 쓰여졌다. 한 마디로 그는 일본이 전승 이후 "침략적 제국주의의 운동에 전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질타했다(McKenzie 1907, 3). 그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서양인들은 1876년에 조선이 일본에 개항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일본이 "조선 지배계급의 부패와 착취"에 신음하는 조선의 백성들을 고려해 "조선의 무능하고 잔인한 행정"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일본은 그 기대를 무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선을 침략하더니 마침내 "보호국"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면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일본이 보여준 것은 "비효율(inefficiency)"이며,

---

33) Frederick A. McKenzie, *The Unveiled East* (London: Hutchinson and Company, 1907). _____, *The Tragedy of Korea*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8). 뒷 책은 그의 저서 *Korea's Fight for Freedom* (London: Fleming H. Revell Company, 1920) 및 그의 논문 "The Colonial Policy of Japan in Korea(1906년 12월 12일)"와 함께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29(서울: 경인문화사, 2001)에 합본되어 있다. *The Tragedy of Korea*의 방역본으로 다음이 있다. 신복룡, 『대한제국의 비극』(서울: 탐구당, 1974; 평민사, 1985; 집문당, 1999); 김창수(金昌洙), 『조선의 비극』(서울: 을유문화사, 1984).

일본인들에게는 철저히 금지시키는 아편을 조선인들에게는 마구 팔아 "조선인들의 건강과 정신을 파괴하는 일"이었다고 지탄했다. 그는 자신이 1906년 여름에 조선통감 이토를 회견했을 때, 이토가 "조선에서 개혁과 정의 그리고 화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다짐은 "순전한 웃음꺼리"일 뿐이라고 매듭지었다(McKenzie 1907, 71-3).

앞의 책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제를 비난하고 조선을 옹호한 책이 『코리아의 비극』이다. 그는 앞의 책에서처럼 일제가 조선을 침략해온 과정을 설명한 뒤, 일제의 강요 아래 추진된 이른바 개혁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을 그들의 사진과 더불어 소개했는데, 이 인상적인 사진의 소개만으로도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준 열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일제가 결국 조선을 병탄할 것이며 그 뒤 대륙으로 침략의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McKenzie 1908, 250-262).

3. 서양인들의 조선 풍물지들

알렌의 『조선적인 것들』. 이 시기에 조선의 풍물을 소개한 서양인들의 책들도 출판됐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알렌의 『조선적인 것들(*Things Korean*)』이다.[34]

---

34) Horace Newton Allen,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이 책은 Horace Newton Allen, *Korea: Fact and Fancy*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Horace Newton Allen, *A Chronological Index* (Seoul, 1901) 및 Robin L. Winkler (ed.), *The Horace Allen Manuscript Collection* (New York: Korean Research Associates, April 1, 1950)과 함께 합본돼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38(서울: 경인문화사, 2001)로 재간됐다. 마지막은 Shannon McCune이 editor 역할을 맡아 출판한 *Research Monographs on Korea*의 Series H, No. 1이었다. Allen의 *Things Korean*은 신복룡 교수에 의해 『조선견문기』로 출판됐다. 초판은 1979년에 박영사에서, 재판은 1985년에 평민사에서, 3판은 1998년에 집문당에서 각각 출판됐다. 2판과 3판의 경우,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1909)의 신복룡 외 역주, 『전환기의 조선』과 합본되어 있다. *Things Korean*의 또 하나의 방역본은 다음이다. 윤후남 옮김 이순자 감수, 『알렌의 조선체류기』(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첫째, 알렌은 조선의 민족적 기원과 언어 및 문화 등에 설명했다. 1) 어떤 과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원주민들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한다. 약 100척 이상의 배들이 일본해의 흐름을 타고 알류샨열도와 알래스카해안을 따라 표류하다가 미주에 도착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확실히 미국 인디언들과 코리언들은 아주 많이 닮았다, 2) 코리언들의 기원은 몽골족이다, 3) 코리언들은 중국의 문자와 일본의 문자를 이해하고 있으나 그것들을 코리언들의 방식으로 발음하고 있다, 4) 코리아는 작은 나라이지만 고대(古代) 이후 유서 깊은 문화를 갖고 있으며 그 문화를 일본에 전수했다, 5) 코리언들은 전통적으로 예절이 바르다 등이 대표적인 설명이다.

둘째, 그는 조선사람들의 의식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조선의 가장 큰 생산물은 쌀이며 그 다음이 콩으로, 쌀은 조선사람들의 주식이다. 조선사람들은 기장 호밀 보리 귀리 밀 옥수수 등을 부식으로 사용하며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 조선의 음식을 말하면서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냄새는 지독하다. 우유를 마시는 관행은 조선에는 없다, 2) 조선사람들은 스스로 백의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흰 옷을 즐겨 입으며 따라서 빨래를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래를 맡은 여자들의 고역은 크다. 빨래는 개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행해지며, 심지어 우물 옆에서도 행해지기 때문에 빨래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조선에서는 다림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빨래를 한 뒤 여자들은 옷을 방망이로 때린다, 3) 조선사람들의 집들은 모두 단층으로, 지배계급은 기와집들을 짓고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라한 초가집들을 짓고 산다. 조선사람들의 주거환경은 위생의 결여로 특징지어진다. 집의 문 바로 앞에는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며 그것들은 발효하면서 악취를 뿜어낸다. 그러나 아일랜드 출신의 서울주재영국총영사는 조선사람들의 주거환경은 위생의 측면에서 볼 때 아일랜드 농촌의 주거환경보다 낫다고 말했다.

셋째, 그는 조선의 생활환경 및 생활습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조선의 도로는 도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해서 그저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길에는 말똥이나 소똥은 물론 말이나 소가 싣고다니다가 흘린 인분 따위도 깔려 있어, 이 길을 다니는 외국의 방문객들에게 조선은 더러움과 냄새의 나라라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준다, 2) 조선에서는 집안의 어느 누가 정치적으로 출세를 해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들

으면 그 집안의 친척친지들은 그 집에 와서 기숙을 하며, 잘 사는 집은 그 식객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주인이 몰락하면 식객들은 모두 떠나므로, 식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출세를 했으며 잘 산다는 징표이다. 3) 조선에서는 상거래 때 고정된 가격이 없어서 파는 쪽은 높은 값을 부르고 사는 쪽은 낮은 값을 부르기 때문에 결국 타협된 값에 매매가 이뤄진다. 4) 조선에서는 인건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하인을 두기가 쉽다(Allen 1908, 136). 그는 또 혼례와 장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넷째, 알렌은 조선사람들이 서양의 과학적 발명들과 기계들 및 제도들에 대해 놀라워했던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사람들은 블랭크(Blank)라는 한 미국인 고래잡이 배의 선장이 조선을 여행하던 때 자신의 의치(義齒)를 씻기 위해 벗어놓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그들은 "아이구머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다. 그들은 한 인간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스스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까지 가졌던 것이다(Allen 1908, 17-19).
2. 1883년에 조선보빙사 일행이 우선 샌프란시스코에 내려 팰리스 호텔에 체류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지진이 난 것으로 착각해 소동을 피웠다(Allen 1908, 162).

엘리베이터는 확실히 조선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그때로부터 13년 뒤인 1896년에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돼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자 여행길에 오른 궁내부 특진관 민영환(閔泳煥)도 1896년 4월 29일에 캐나다 밴쿠버에 내려 호텔에 머물렀을 때 엘리베이터를 보고 다음과 같이 썼다: "호텔 이름은 벤쿠버 호텔이었다. 5층 높이에 넓게 트인 집이었는데 오르고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헤아려 아래층에 한 칸의 집을 마련하여 전기로 마음대로 오르내리니 기막힌 생각이다."[35]

35) 민영환은 여행 당시에 『해천추범(海天秋帆)』이라는 이름 아래 한문으로 일기를 썼다. 이것은 뒷날 『해천추범』(서울: 을유문화사, 1959)과 『민충정공유고』(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0)으로 역간됐는데, 모두 완역이 아니다. 완역본으로는 다음이 있다. 민영환 지음 조재곤(趙在坤) 편역, 『해천추범: 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서울: 책과함께, 2007). 위와 같음, 43쪽.

알렌이 예시한 조선사람들의 문화충격은 민영환을 수행했던 김득련(金得鍊)의 일기 『환구일기(環璆日記: 필사본, 1896)』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우선 모스크바의 연회장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거는 서양여자들에 대해 "내 얼굴이 잘 생겨서일까, 아니면 남녀칠세부동석을 몰라서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으며, 테너가수에 대해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이 돋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 서양에서 군자노릇 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보다"고 개탄했고, 발레를 하는 소녀에 대해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가녀린 낭자를 학대하다니, 서양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구나"라고 탄식했다(민영환 2007, 86).

조선사람들의 문화충격에 대한 알렌의 지적은 다음과 같이 계속됐다:

1. 1884년에 조선에 도착한 한 미국인 해군장교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을 보고 조선사람들은 놀라서 길에 몰려들었다. 조선사람들은 증기기관차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승객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자신이 목적지에 내리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기차가 목적지에 접근하면 뛰어내리려고 했다(Allen 1908, 132-133).

   그러나 사람들은 철도를 통해 하나의 큰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기차는 귀족을 위해서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교훈이었다. 기차는 시간표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비록 양반이라도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차차 알게 됐다.
2. 어떤 가난한 조선사람은 전차 선로를 자신의 베개로 쓰려고 했다. 어느 따뜻한 밤에 그는 선로를 베고 자겠다고 고집했던 것이다(Allen 1908, 132-135).[36]
3. 서울주재미국공사관에서 자신의 전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어떤 공사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하인에게 칵테일(cocktail) 석 잔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칵(cock)의 테일(tail)로 잘못 알아듣고 닭의 꼬리 셋을 뽑아 왔다(Allen 1908, 137-138).

다섯째, 조선궁정의 시의였던 그는 고종은 물론 왕족들을 개인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민비는 볼 수 없었다. 몇 해가 지나서야 그는 민비를 볼 수 있었으며

36) 이 일은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정성화 로버트 네프(Robert Neff) 공저,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구한말 한국에서 체류했던 서양인들의 일상』(서울: 푸른역사, 2008), 293쪽.

민비는 그와 공개적으로 대화를 했다. 그가 민비를 볼 수 없었던 시절에 민비가 병에 걸렸을 때는 이른바 사진(絲診 또는 紗診), 곧 환관이 민비의 손목을 실로 묶고 그 실을 창호지 문 밖으로 내밀어주면 그 실을 통해 맥박을 짚어 병세를 진단하는 방식에 의존했다. 또 주사를 놓을 때도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Allen 1908, 192-193).

여섯째, 그는 1907년을 전후하여 평양의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운동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했다. 예컨대 어느 미국인 선교사는 이 부흥운동의 열기 속에서 자신의 "결함들"을 고백했다가 조선을 떠나고 선교사 일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Allen 1908, 171).[37]

이상에서 소개한 관찰들보다 정치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관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렌은 조선이 관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이며 따라서 조선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관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성장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미 많은 서양인들이 지적했듯, 그 역시 조선에서는 관직들이 각각 정가(定價)에 따라 매매되고 관리가 백성을 "쥐어짜낸다"고 개탄했다. 누구든지 재산을 축적했다고 하면 관리들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고통을 주고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나 뇌물"을 내야만 석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백성들은 "생산할 유인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산업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는 평가했다(Allen 1908, 107-108).

둘째, 알렌은 조선의 해안들이 "쓸쓸하고 황량하며 대체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뒤, 그 원인을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꺼린 조선사람들의 속셈에서 찾았다.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상륙해서 입국하려는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안 주변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림으로써 "울적하고 즐거움이 없는 외양"이 형성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Allen 1908, 50).

셋째, 알렌은 조선사람들을 "가엾다"고 말한 뒤, 조선이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한번쯤 완전히 뒤집혔더라면 조선사람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었을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했다. 조선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꿈만 꾸면서 아무

37) 이 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1909년경에는 백만인구구령운동이 일어났다. 이만열 교수는 이 부흥운동이 "〔일제에 대한〕 민족적 폭발을 저지시키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81), 24쪽.

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조선의 적국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르친 스승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를 패퇴시켰다는 것이었다(Allen 1908, 59). 그가 말한 조선의 적국은 물론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넷째, 알렌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조선이 1884년 이후 경험했던 정치적 변동들을 분석했다. 그는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한 이후 고종과 그의 조정이 실책을 많이 저질렀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고종의 "인간적 나약함" 그리고 "아첨하는 신하들의 설득에 쉽게 넘어가는 성격" 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조선의 장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내다보았다. 일본은 이제 미국의 "간섭"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중국의 정복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조선이 어떤 다른 "주인"의 통치아래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Allen 1908, 255-256). 일제의 "보호국"과 "식민지"를 거친 뒤, 결국 "해방된" 조선은 3년에 걸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주인"의 분할통치 아래 놓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 부분에서 다시 그의 혜안을 느끼게 된다.

게일의 『전환기의 코리아』. 알렌에 이어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이 『전환기의 코리아 (*Transition in Korea*)』를 출판했다.[38] 우선 저자에 대해 알아본다.[39] 그는 1863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 토론토대학교 인문학부를 졸업했으며, 1888년에 토론토 YMCA의 선교사로 조선에 왔다. 그러나 그는 1891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옮겼으며, 1897년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조선에서 게일은 많은 일들을 했다. 선교사의 본업을 수행하면서 조선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는데, 특히 언더우드 및 헐버트 등과 함께 『한영사전』 등을 편찬하는 등 한국학의 토대를 쌓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글은 뛰어난 글자이고 "극동에서 코리아가 기여한 문화적인 공헌은 압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그러한

38)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1909). 이 책은 그의 Korean Sketches와 함께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38(서울: 경인문화사, 2000)에 합본되어 있다.

39) 민경배, 「게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문화를 아낀 선교사」, 『한국사 시민강좌』 제34집 제1호(2004년 2월), 69-80쪽. 또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People of Korea*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in conjunction with Taewon Publishing Company, 1972), pp. 1-88.

취지에서 조선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서양의 문화를 조선에 소개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그는 1927년에 영국에 영주하면서 영국성공회에 입교하며, 1937년에 바스(Bath) 시에서 향년 73세로 별세한다.

조선에 관한 그의 최초의 단독 저서는 그가 1898년에 출판한 『코리아에 대한 소묘(*Korean Sketches*)』였다.[40] 이 책은 일차적으로 그가 조선을 여행하면서 관찰한 조선사람들의 생활관습들을 묘사했다. 예컨대, 백성들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길거리에 내버려 햇볕에 익게 하고 썩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던 경우를 소개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어떤 서양사람들의 관찰들과는 달리, 잔인하지 않으며 친절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자제했다. 다만 「조선의 현 상황」이라는 제목의 제11장에서 조선의 국내외 정치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그는 조선의 독립유지와 국가적 존속에 대해 회의를 표시했다.

게일의 이러한 관찰과 논지는 『전환기의 코리아』에서 사실상 되풀이됐다. 그는 제2장 「이 나라의 현 상황」에서 1) 조선은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2) "이러한 체제 아래 백성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3) 백성들은 억압받고 있고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코리아는 각성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고 충고한 뒤, 코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대가 코리아를 밟고지나가면서 코리아를 영원히 부수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선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조선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새 시대의 새 힘에 자신을 적응시킬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개탄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한 것이다(Gale 1909, 33-34).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서양인들의 조선관찰 기록들은 대체로 제1회와 제2회에서 살핀 기존의 기록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40) James S. Gale, *Korean Sketches* (New York, Chicago, and Toronto: Fleming H. Revell Company, 1898).

첫째, 조선은 대륙국가들과 해양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열강의 침략을 자주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열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조선족은 몽골족에 속하며, 중국사람들이나 일본사람들과 명백하게 구별된다. 조선족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문자를 갖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둘째, 조선은 산천경개는 매우 아름다운 나라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들은 매우 더럽다. 소수의 지배계급이 사는 집들은 기와집임에 비해 다수의 피지배계급이 사는 집들은 움막이나 다름없이 초라하며, 거기에서 사람들과 벌레들이 함께 산다. 다수의 피지배계급은 불결하며 비위생적인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여건이 전염병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천연두와 콜레라가 가장 대표적이다. 조선사람들은 대체로 고기와 우유를 먹지 않으며 생선을 많이 먹는다.

셋째, 조선은 서울중심적인 국가다. 서울은 조선의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조선 그 자체다.

넷째, 조선은 부모들이 아들들의 교육에 힘을 쏟는 나라다.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과거시험에 합격시켜 관직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인재선발의 훌륭한 제도이던 과거시험은 이제 타락해서 합격여부는 돈으로 좌우된다.

다섯째, 조선은 왕실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미신이 성행하는 나라다. 종교라고 해야 사실상 샤머니즘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많은 부문에서 발달되지 않아, 질병에 대해 미신으로 대처하는 것이 통례다. 이러한 관습으로 말미암아, 왕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조차 미신에 많은 돈을 쓴다.

여섯째, 조선에서 여성은 엄격한 격리와 통제 속에서 자신의 이름도 없이 살고 있다. 특히 피지배계급의 여성은 고역의 생활을 하며 눈물과 한을 안고 살고 있다. 지배계급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축첩제도의 중압 속에 살고 있다.

일곱째, 조선은 양반이라는 말로 압축되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쥐어짜내는" 부패한 나라다. 모든 관직들을 팔고 사며, 왕실 스스로 관직들을 팔아 왕실의 재정과 정치자금을 충당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다수의 백성들은 관리들로부터 "쥐어짜냄"을 당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을 한다. 여기에 조선사회를 지배하는 노동천시사상이 겹쳐, 조선에서는 백성들 사이에 근로의욕이 사라졌으며, 그 결과 조선에서는 산업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양한 지하자원들과 수산자원들을 갖고 있는데도 조선이 아주 가난한 나라로 머물러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여덟째, 조선은 형벌이 엄혹한 나라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범죄 수사와 치죄(治罪)의 과정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다.

아홉째, 조선은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로 특정지어진다. 조선은 "후진적이며 미개하고 자활 자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이므로 "문명개화된" 일본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다만 헐버트를 비롯한 극소수의 서양인들만이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다). 고종은 인상도 좋고 마음도 착했으나 성격과 심지가 나약해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다만 헐버트를 비롯한 극소수의 서양인들만이 고종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했다). 반면에, 민비는 담대하고 지혜로우며 용인술에 능한 실질적 통치자다. 그러나 그녀는 민씨척족에 지나치게 의지했다.

코리아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한 서양인들은 코리아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했던가? 이미 1880년대 말과 1890년대 초 사이 이후, 특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통찰력을 가진 서양인들은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거나 일본 및 러시아의 "공동보호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수의 서양인들은 코리아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까지 표명했다.

참고문헌

김장춘 편. 2008.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조선』. 서울: 살림출판사.

김지남 외 저. 이상태 외 역.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서울: 혜안.

까를로 로제티 저. 서울학연구소 역. 1996.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 숲과 나무.

목린덕 저. 고병익 역. 1963. 「목린덕의 수기」. 『진단학보』 제24집. 189-193.

민경배. 2004. 「게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문화를 아낀 선교사」. 『한국사 시민강좌』 제34집 제1호. 69-80.

민영환 저. 조재곤(趙在坤) 편역. 2007. 『해천추범: 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서울: 책과 함께.

박노자. 2004. 「지금 우리는 1백년 전의 서양인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박노자 · 허동현(許東賢)의 '한국근대 1백년 논쟁' (11) 서양인의 조선관」. 『프레시언』(4월 2일).

아손 그렙스트 저. 김상열 역. 1986. 『코레아 코레아: 이것이 조선의 마지막 모습이다』. 서울: 미완.

이노우에 가쿠고로 저. 신영길 역. 2008. 『조선조 망국 전야기』. 서울: 지선당.

이만열. 1981.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잭 런던 저. 윤미기 역. 1995.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서울: 한울.

정성화. 2001. 「해제」.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45』. 서울: 경인문화사.

정성화 · 로버트 네프 공저. 2008.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구한말 한국에서 체류했던 서양인들의 일상』. 서울: 푸른역사.

최기영. 2004. 「매켄지: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서양인」. 『한국사 시민강좌』 제34집 제1호.

프레데릭 불레스텍스 저. 이향 · 김정연 역. 2001.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서양인이 본 한국인』. 서울: 청년사.

현광호. 2002.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서울: 신서원.

호레이스 알렌 저. 김원모 역. 1991. 『알렌의 일기: 구한말 격동기 비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Brandt, Max von. 1897. *Ostasiatische Fragen: China, Japan, Korea*. Berlin: Verlag von Gebruder Paetel.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7; London: John Murray Company, 1898.

Cavendish, Alfred Edward John. 1984.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Being a Brief Account of a Journey in Korea in 1891*. London: G. Philip & Son.

Curzon, George Nathaniel. 1894. *Problems of the Far East: Japan, Korea, China*, 2nd ed.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Diosy, Arthur. 1904. *The New Far East*, 4th ed. London, Paris and New York: Cassell and Company, Ltd.

Frederick A. McKenzie, 1907. *The Unveiled East*. London: Hutchinson and Company.

_____. 1909. *The Tragedy of Korea*. London: Hodder and Stoughton.

Horace Newton Allen, 1908.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Hulbert, Homer B. 1905. *The History of Korea*.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Vol. 1

_____. 1906. *The Passing of Korea*. Garden City, N.Y.: Doubleday, Page and Company.

James S. Gale, 1909. *Korea in Transition*.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_____. 1898. *Korean Sketches*. New York, Chicago, and Toronto: Fleming H. Revell Company.

Keith, Elizabeth & Scott, E.K. Robertson. 1947. *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Ladd, George Trumbull. 1908. *In Korea with Marquis Ito*.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Longford, Joseph H. 1911. *The Story of Korea*. London: T. Fisher Unwin.

McKenzie, Frederick Arthur. 1905. *From Tokyo to Tiflis*. London: Hurst and Blackett.

Millard, Thomas F. 1906. *The New Far East: An Examination into the New Position of Japan and Her Infiuence Upon the Solution of the Far Eastern Ques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Miln, Louise Jordan. 1895. *Quaint Korea*. London: Osgood, McIlvaine and Company.

Rutt, Richard. 1972.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People of Korea*.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in conjunction with Taewon Publishing Company.

Sands, William Franklin. 1930. *Undiplomatic Memories: The Far East, 1896-1904*. New York: Whittlesey Hous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Shin Yong-suk. 1986. "Late Chŏson Dynasty Korea in Contemporary French Newspapers." *Korea Journal* 26. No. 6 (June), 51-60.

Taylor, Constance J.D. 1904.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Paris: Cassel and Co.

Whigham, H.J. 1904. *Manchuria and Korea*. London: Isbister and Company. Ltd.

White, Trumbull. 1895. *The War in the East: Japan, China and Corea*. Philadelphia and Chicago: P.W. Ziegler and Company. Part III (Corea).

Wilkinson, W.H. 1897. *The Korean Government: Constitutional Changes, July, 1894 to October, 1895*, Shanghai.

Wunsch, Gertrud Claussen. 1976. *Arzt in Ostasie*.

ABSTRACT

Chosun as Seen by Westerners (Series No. 3): From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until the Fall of Chosun

Hakjoon Kim | Dong-A Ilbo

This article reviews books or articles written by Westerners, who studied Chosun or visited Chosun, from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until the fall of Chosun. Their observation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1. Most of them viewed that because Korea is surrounded by the continental powers and the oceanic powers, it had been repeatedly invaded by powerful countries and its influence still exists even today. Koreans belong to Mongol, and they are differentiated from the Japanese and the Chinese. Koreans have their own unique history, culture and alphabet.
2. Most of them believed that Korea is a very mountainous country with a lot of beautiful streams, but the regions where people reside are very dirty and filthy. Compared to very few ruling class live in a house with roofing tiles, majority of non-ruling class live in mud huts along with insects. The non-ruling class lives a very filthy and unsanitary life. These living conditions resulted in transmitted diseases such as smallpox and cholera. Majority of the people do not eat meat and milk.
3. Many have pointed out that Korea is a very superstitious country, and that everyone from the very poor to the royal family is devoted to superstition. The only so-called religion that exists in this country is shamanism. Lacking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s generally depend on superstition to treat the diseases. Not only the royal family, but even the commons spend a lot of money on superstition.

Keywords: Alfred Edward John Cavendish, Louise Jordan Miln, Isabella Bishop, George Nathaniel Curzon, Max von Brandt, Inoue Gakugoro, Paul Georg von Möllendorff, Horace Newton Allen, William Sands, Carlo Rossetti, Richard Wunsch, Frank Arthur McKenzie, Jack London, William Daniel Ason Grebst, Homer Bazaleel Hulbert, George Trumbell Ladd, James Scarth Gale